"Children in primary school on the first day of classes in the new school year"
Photo: Genti Shkullaku / World Bank

인구절벽에 선 한국: 해법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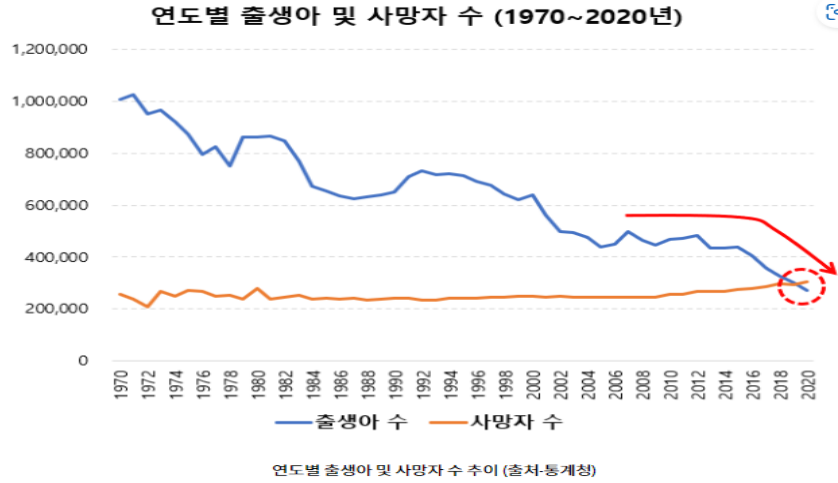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 장 이 인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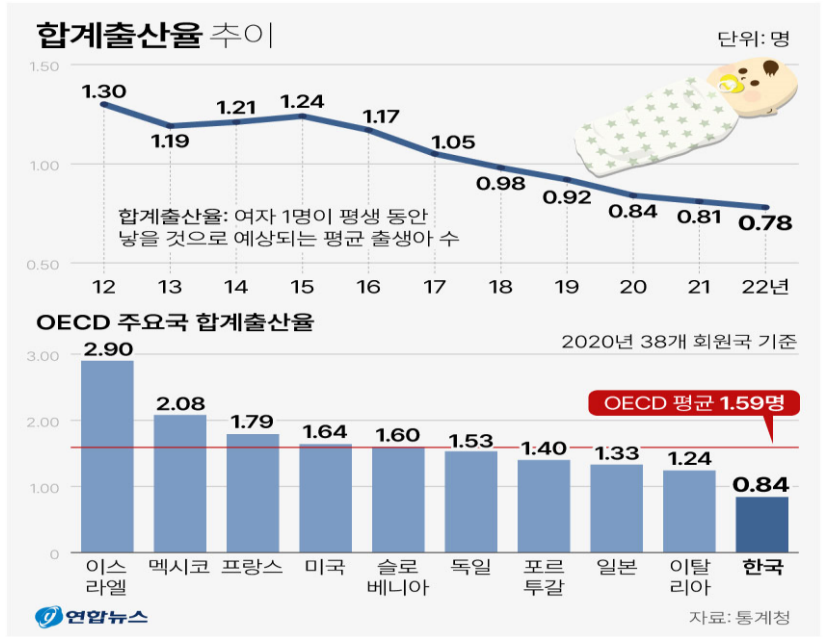
한 반 도 미 래 인 구 연 구 원
Korean Peninsula Population Institute for Future

인구절벽에 선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 왜 인구절벽인가? → 인구문제는 예정된 미래: 2021년 인구감소의 원년
-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급격한 하락
- MZ세대의 결혼 출산 시기 도래 → 비혼문화 확산, 가족문화의 붕괴
- 2015년 이후 합계초혼율 급격히 하락: 0.7(2015)→ 0.46(2021)→0.4?(2022) →0.3?(2023) → 변곡점이 안보여!!
- 가임여성(15~49세) 수의 급감
-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 → 인적자원의 붕괴 → 대한민국의 붕괴,
- 대한민국을 '집단 자살사회'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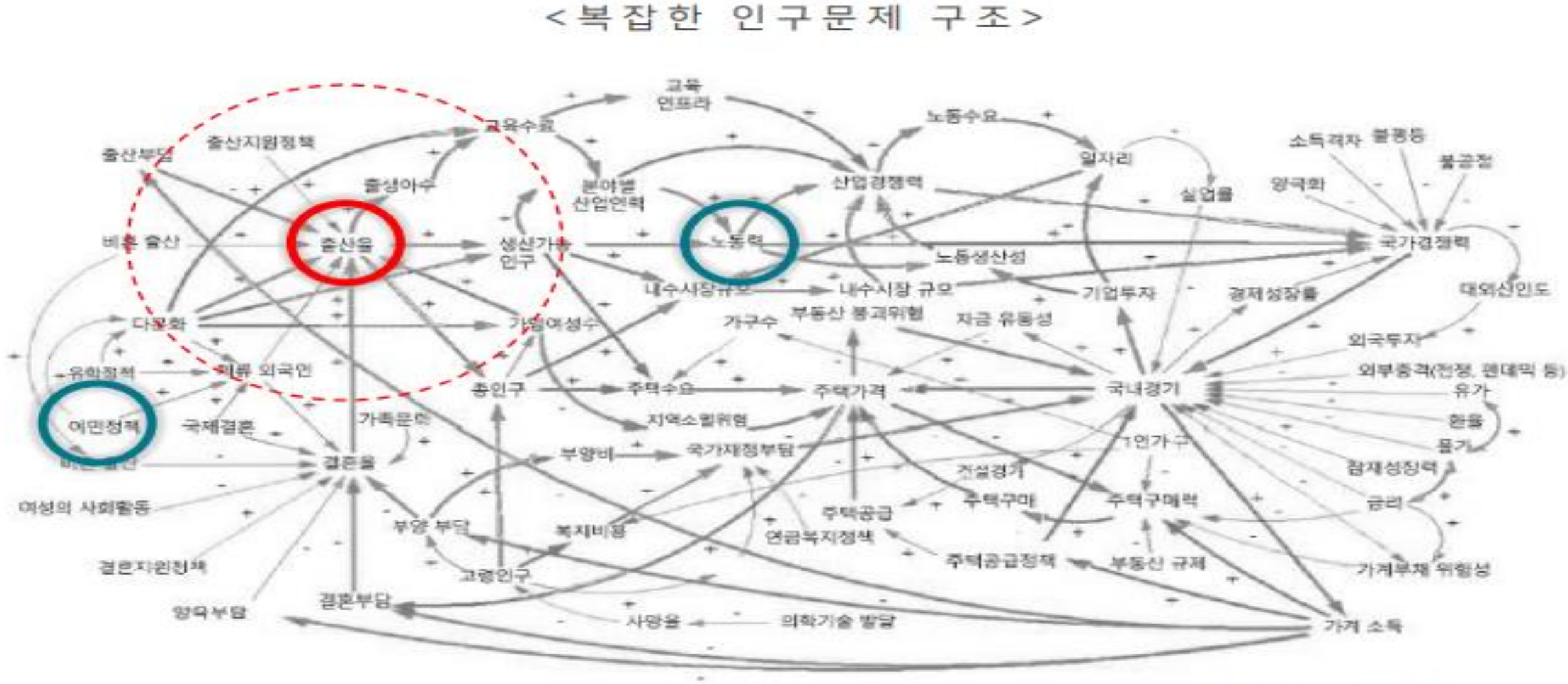


연도별 출생아 및 사망자 수 추이 (출처-통계청)



원형민 기자 2023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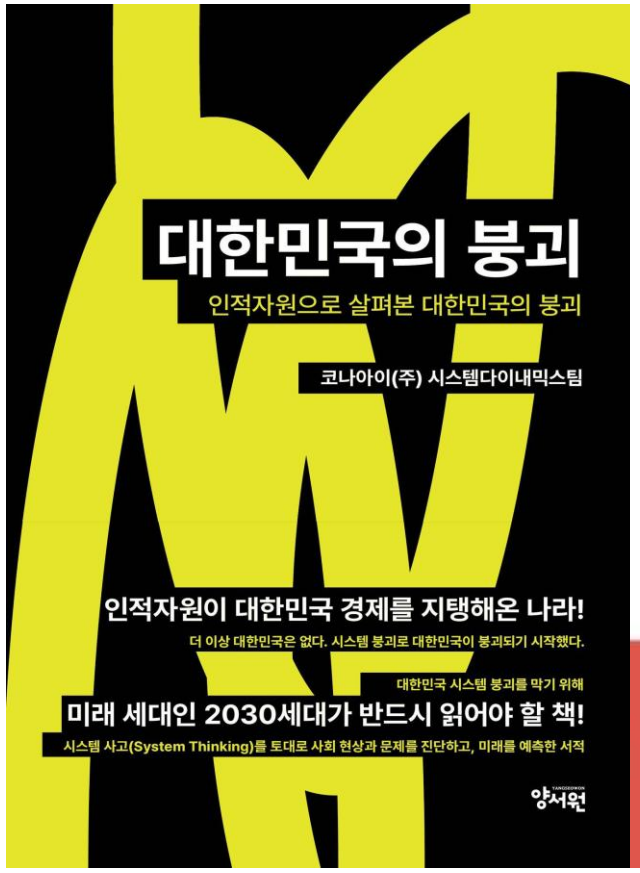
인구문제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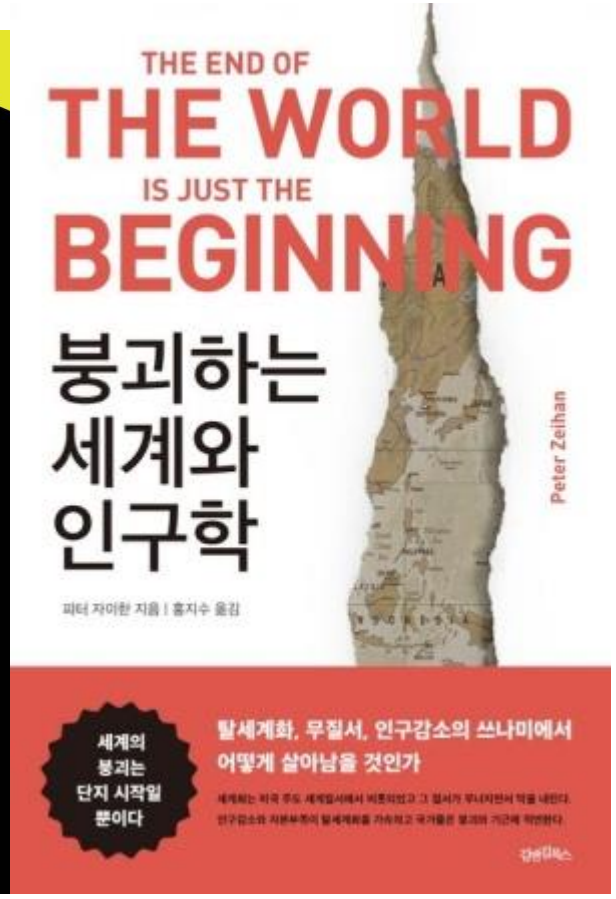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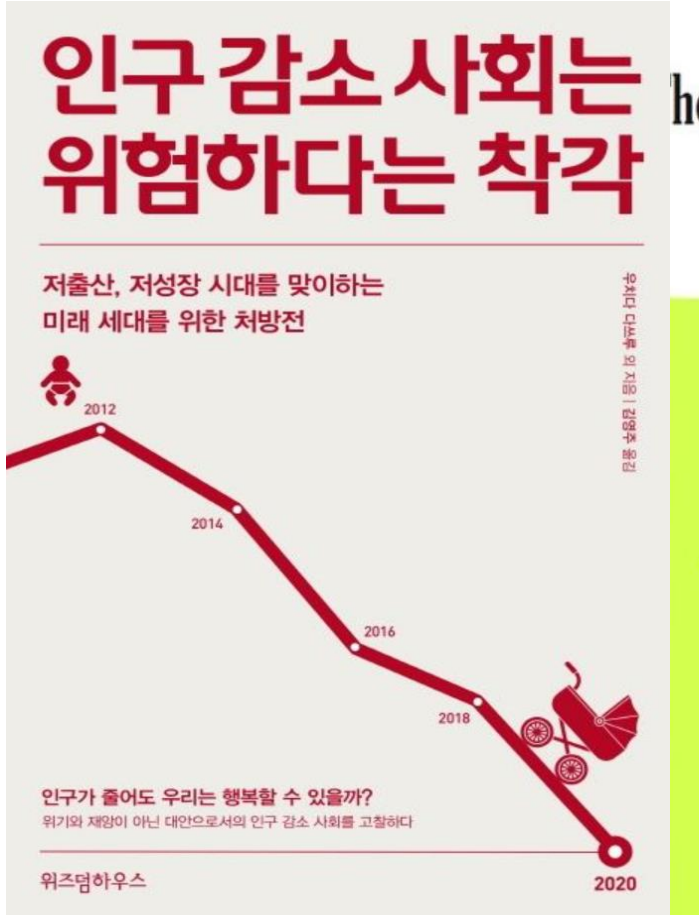
코나아이㈜ 시스템다이내믹스팀(2022)
'대한민국의 붕괴: 인적자원으로 살펴본 대한민국의 붕괴',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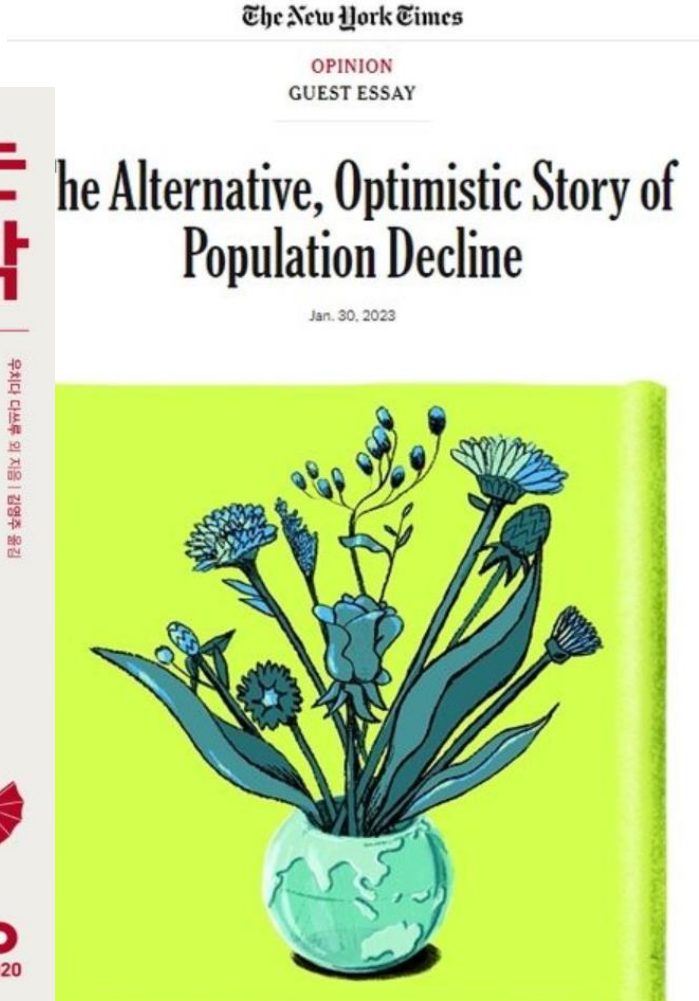
인구문제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논리들

인구감소, 축복이라니까 ! vs.이대로 가면 국가 파산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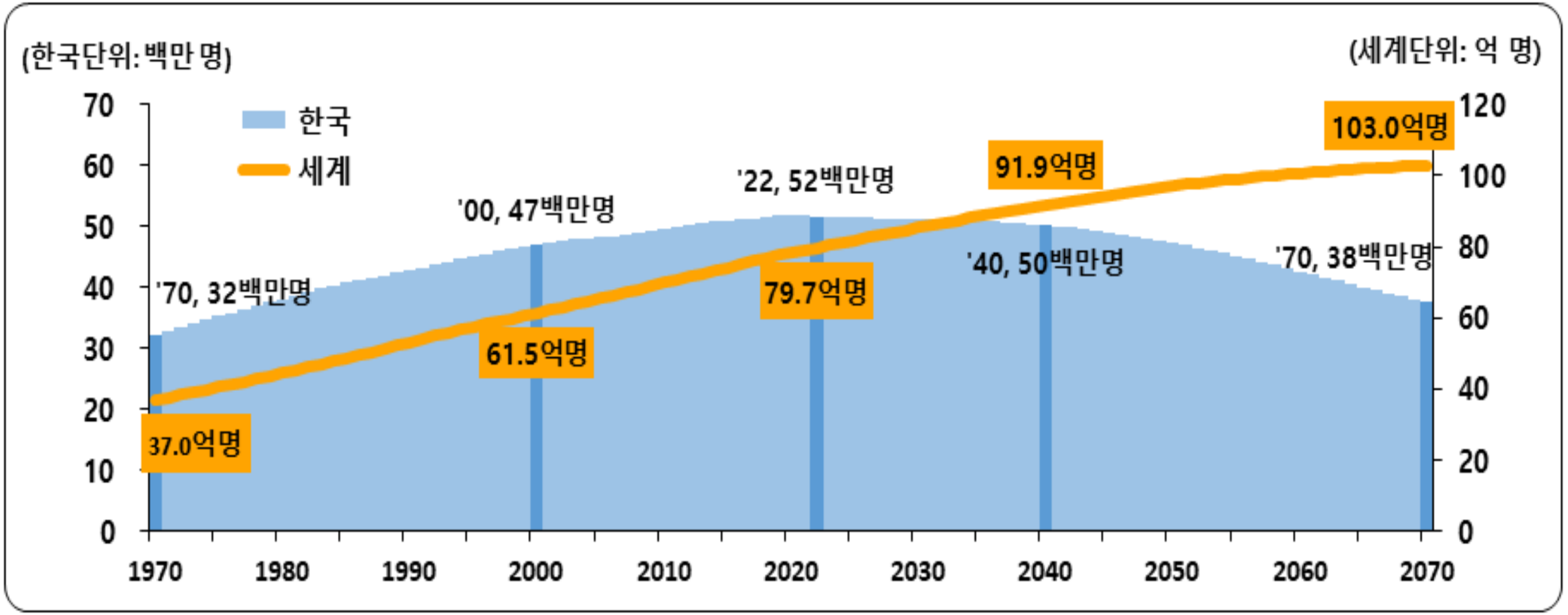
차 례

1. 인구 측면에서 본 세계 속의 한국 인구
2. 인구문제의 글로벌 보편성 속에서
   한국적 특수성
3. 인구문제로 인해 한국이 마주한 현실
4. 인구절벽에 선 대한민국: 해결책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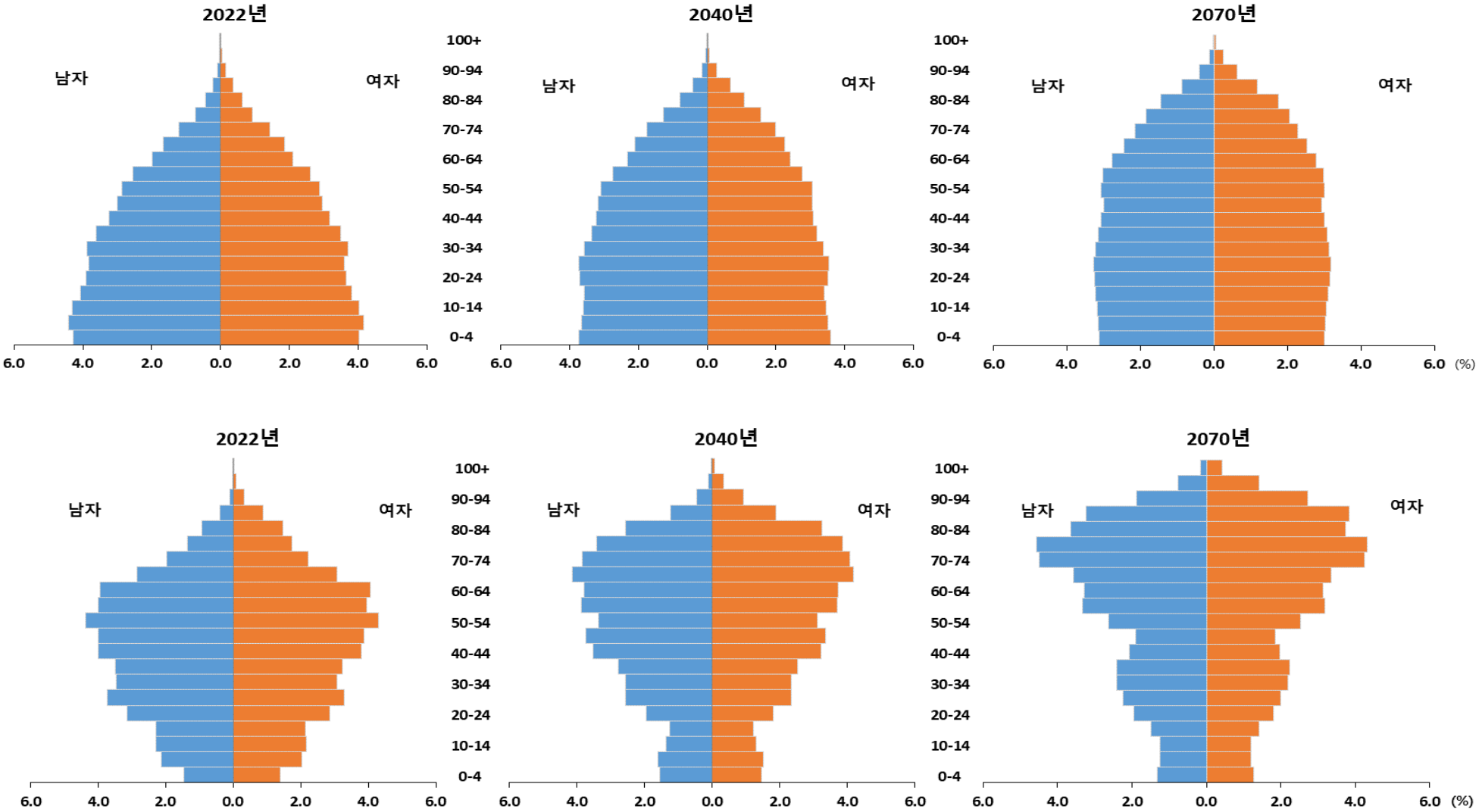
1. 인구 측면에서 본 세계 속의 한국 인구

1.1. 80억 세계 인구는 늘고 있지만 한국인구는 절벽에 직면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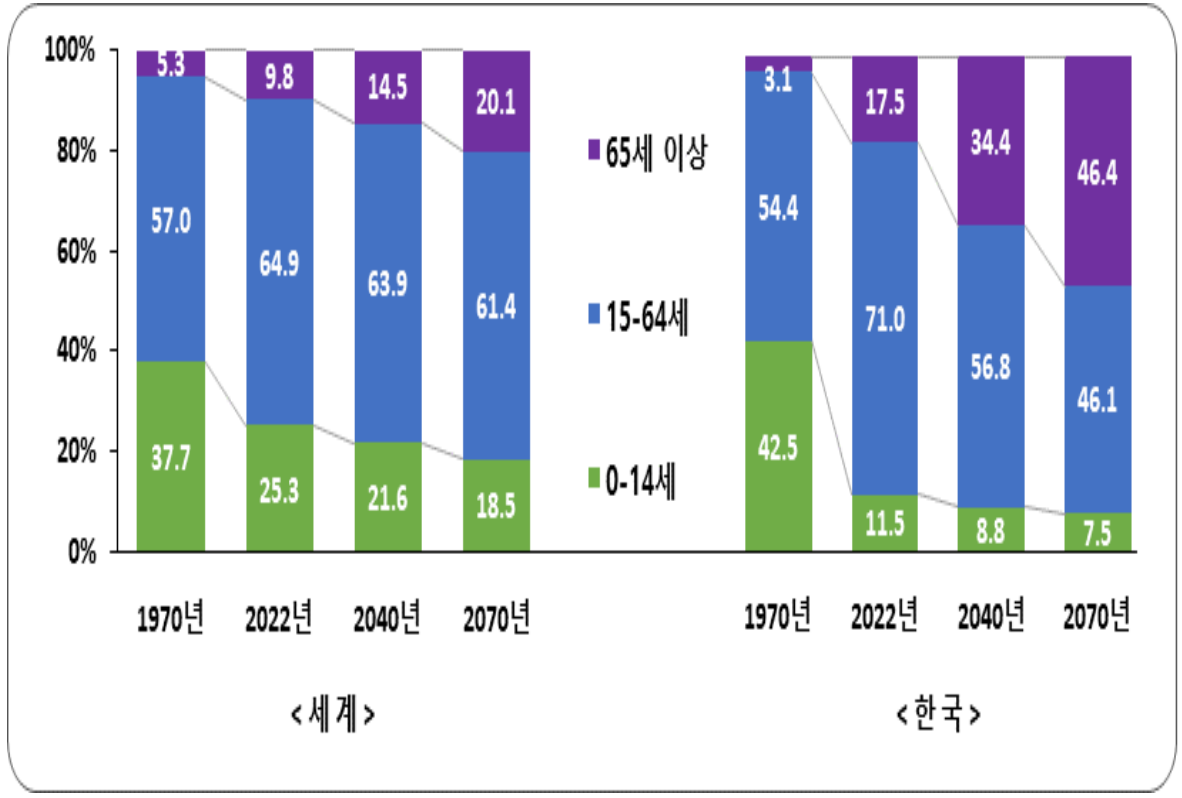


1.2. 세계 인구(위)는 피라미드, 한국인구(아래)는 파라오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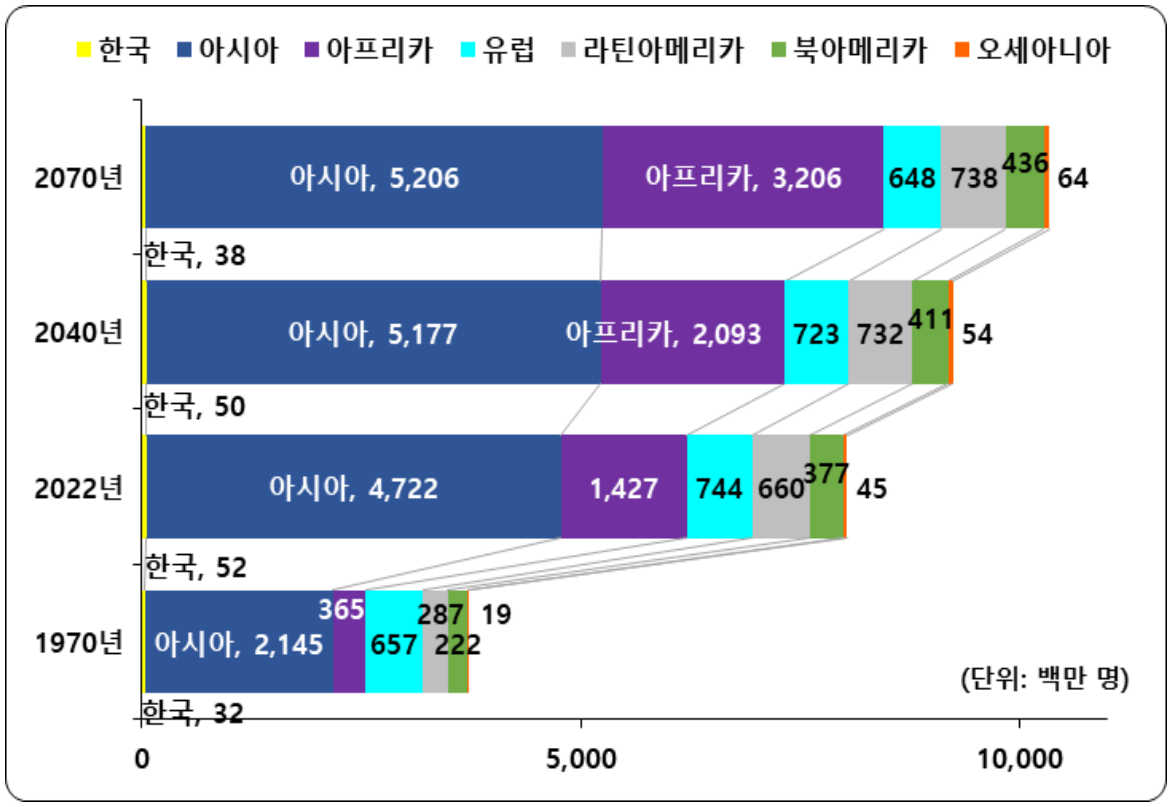


1.3. 세계인구도 전반적으로 고령화 중이나 한국 고령화는 감당불가 수준
유럽인구 감소, 아시아 정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증가

세계와 한국의 연령별 인구구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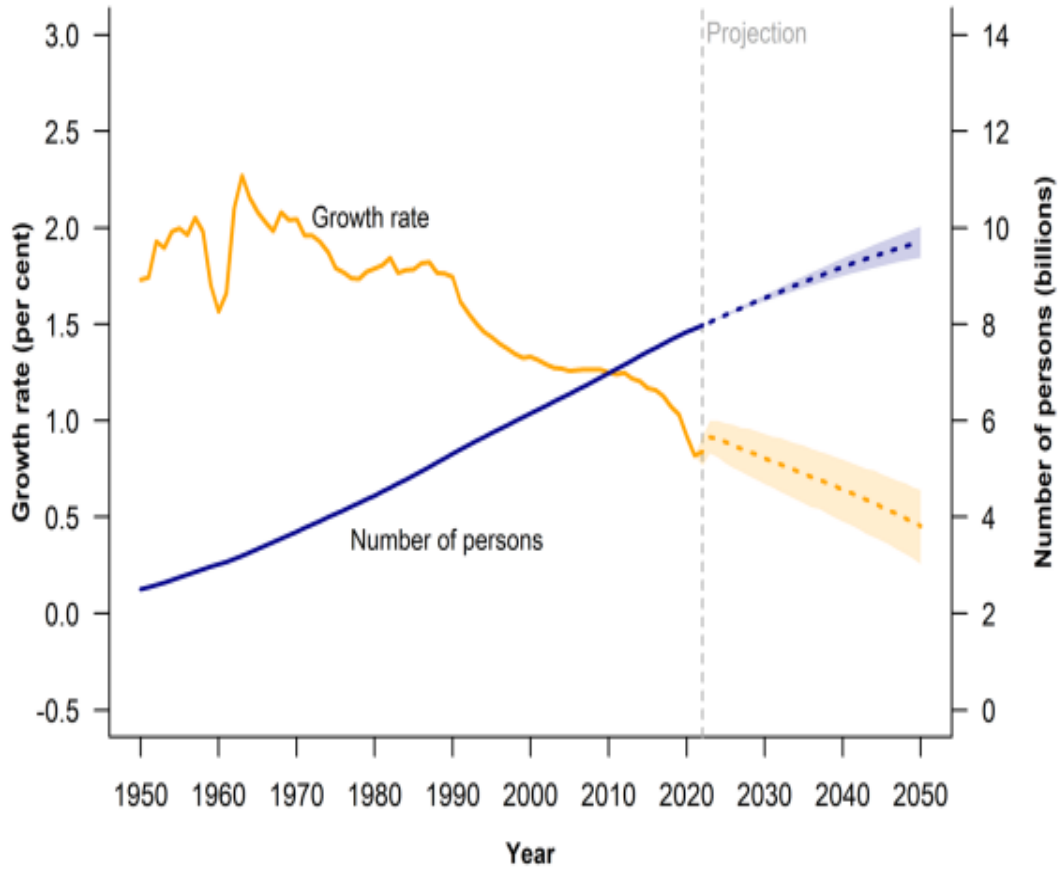


대륙별 인구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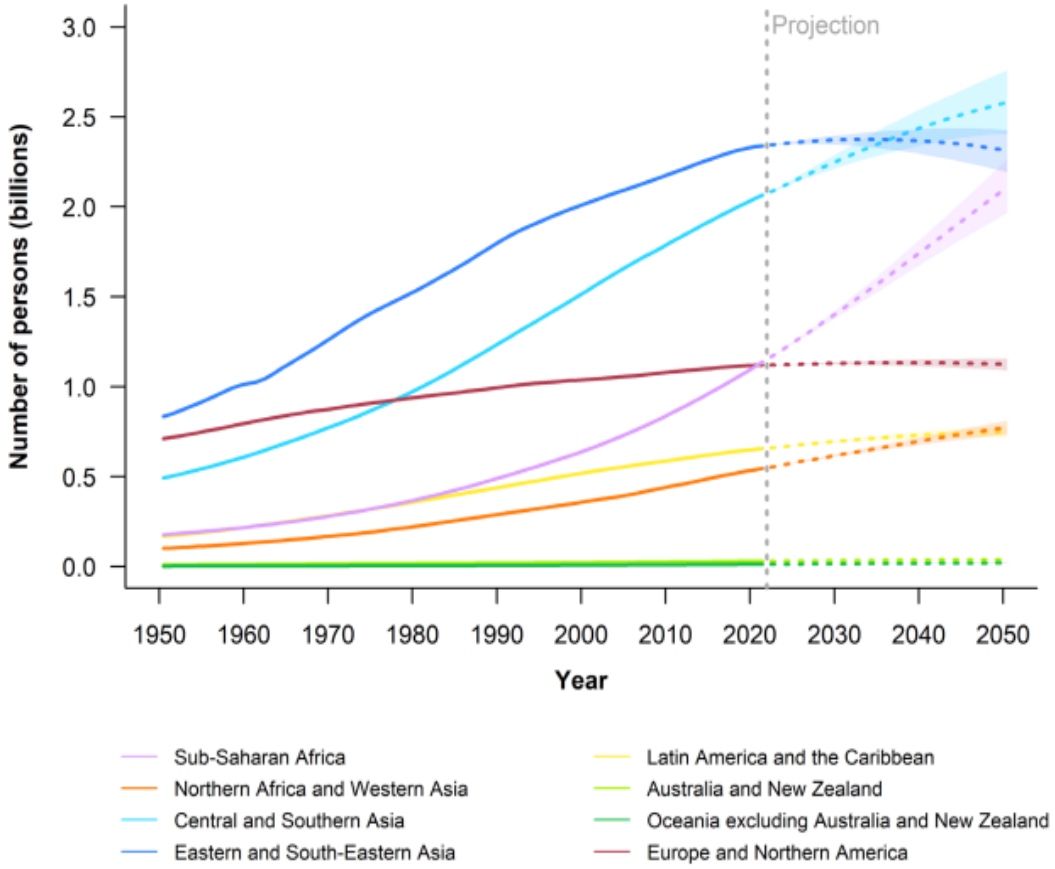


1.4. 세계인구는 늘지만 인구증가율은 감소 중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구는 감소

Global population size and annual growth rate: estimates, 1950-2022, and medium scenario with 95 per cent prediction intervals, 2022-2050



Population estimates, 1950-2022, and projections with 95 per cent prediction intervals, 2022-2050, by region



Source;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Summary of Results, UN DESA/POP/2021/TR/NO. 3

1.5. 유럽과 북아메리카 인구는 감소,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인구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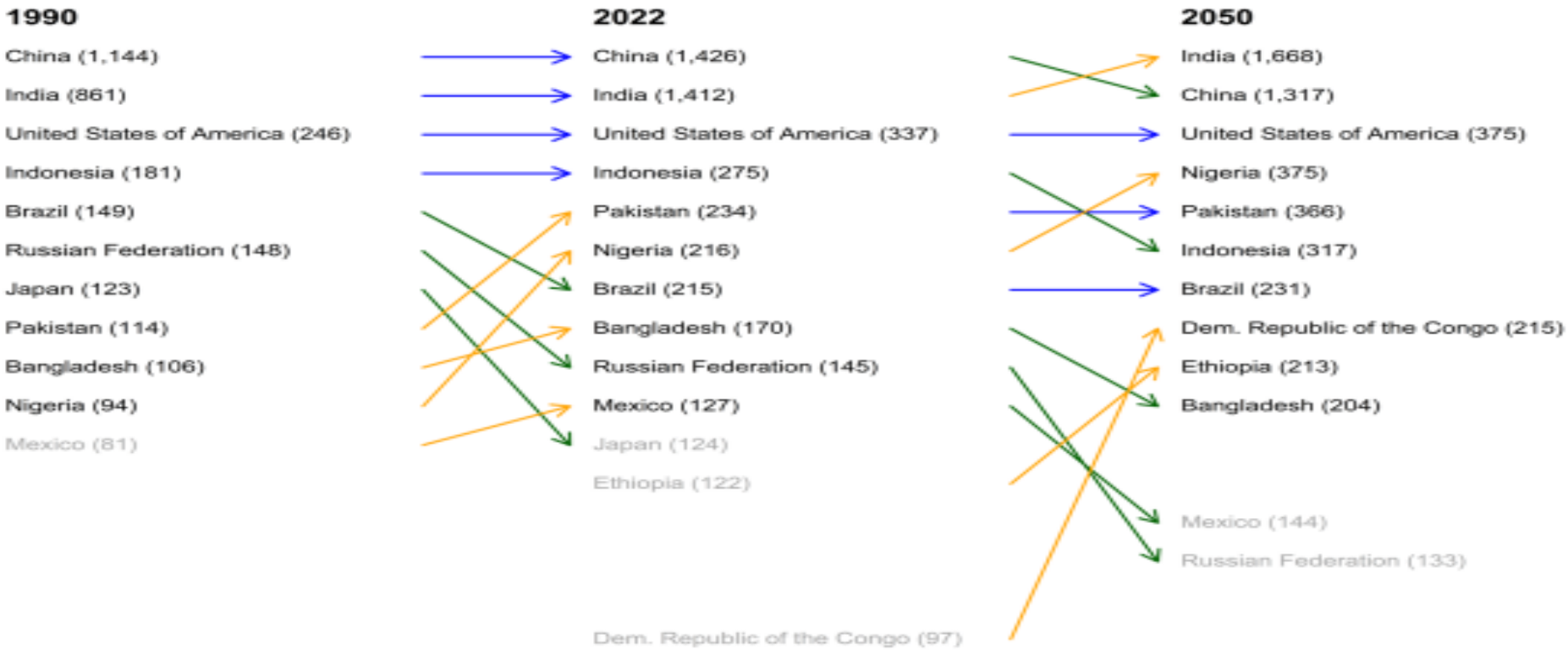
Population of the world, SDG regions and selected groups of countries, 2022, 2030 and 2050 according to the medium scenario

	Population (in millions)		
Region	*2022*	*2030*	*2050*
World	**7,942**	**8,512**	**9,687**
Sub-Saharan Africa	1,152	1,401	2,094
Northern Africa and Western Asia	549	617	771
Central and Southern Asia	2,075	2,248	2,575
Eastern and South-Eastern Asia	2,342	2,372	2,31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658	695	749
Australia/New Zealand	31	34	38
Oceania*	14	15	20
Europe and Northern America	1,120	1,129	1,125
Least developed countries	1,112	1,328	1,914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557	664	947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74	79	87

-ex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1.6. 2023년부터 인구 1위국이 중국에서 인도로, 2050년 인도 16.7억, 중국 13.2억 전망

Rankings of the world's ten most populous countries, 1990 and 2022, and medium scenario, 2050 (numbers in parentheses refer to total population in millions)



Note: The figure depicts only those countries which are among the ten most populous countries in 1990, 2022 or 2050. A blue arrow indicates that a country maintains the same rank, a yellow arrow indicates that a country increases in rank and a green arrow indicates that a country's ranking is falling. The 10 highest ranking countries are shown in black. Other countries are shown in grey.

1.7. 고령화(65세이상 인구비중)는 전세계적 현상, 유럽, 북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순 고령화 수준 높아

- 특히 노동력 차원에서 보면

- 생산연령인구(15~64세)비중:
  2012 → 2021 → 2070
- 전세계: 65.3% → 64.9% → 61.4%
- 한국 : 73.4% → 71.0% → 46.1%
- 일본 : 60.5% → 58.5% → 50.4%
- 중국 : 72.6% → 69.0% → 53.5%

- 현재 일본은 중소기업의 약 70%,
  한국은 60%가 구인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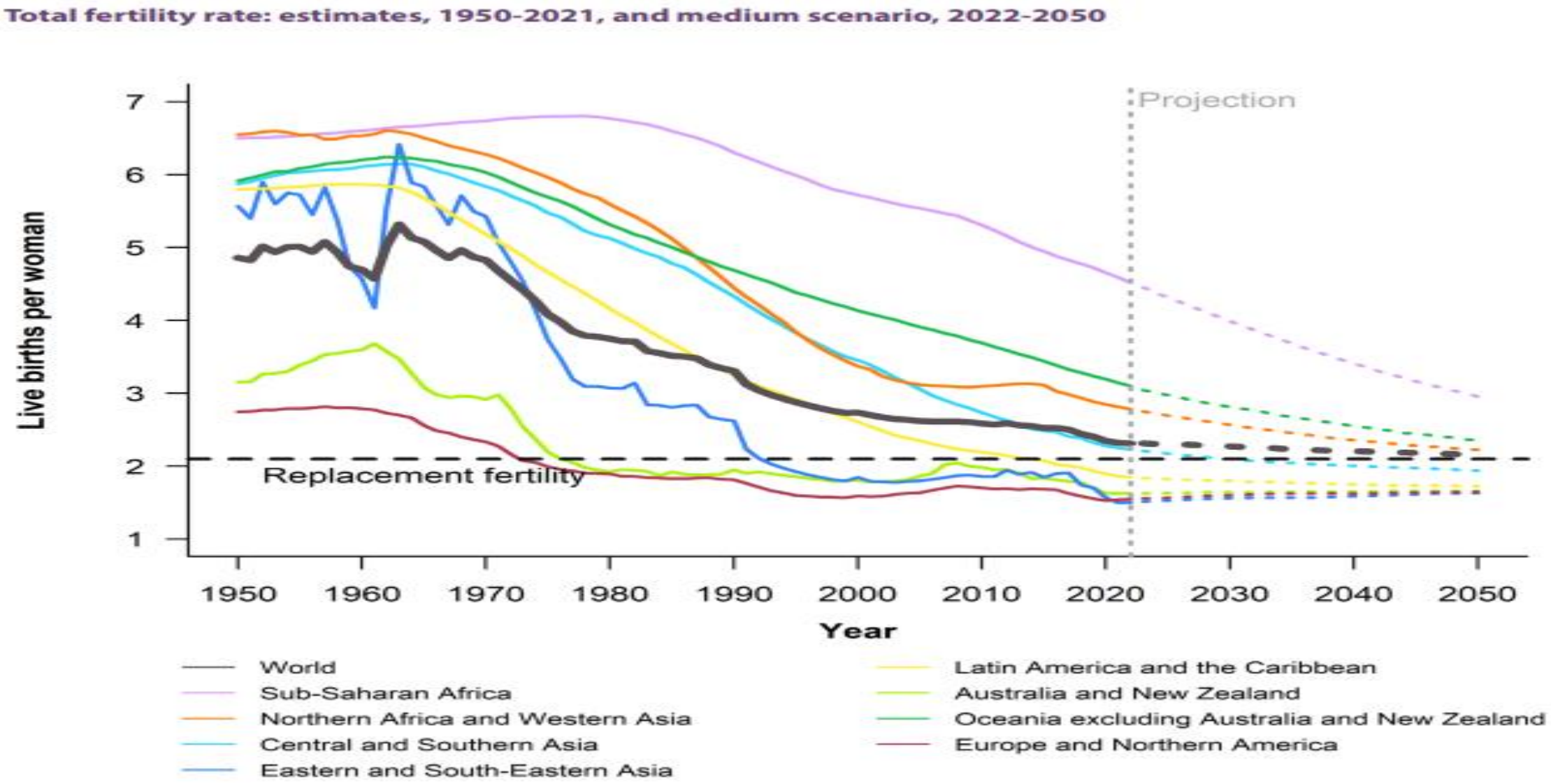
-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노동력 감소는
  글로벌 공급망 등 세계 경제에 직접적 영향

Percentage of population aged 65 years or over for the world, SDG regions, and selected groups of countries, 2022, 2030 and 2050, according to the medium scenario

Region	*2022*	*2030*	*2050*
World	**9.7**	**11.7**	**16.4**
Sub-Saharan Africa	3.0	3.3	4.7
Northern Africa and Western Asia	5.5	7.0	12.5
Central and Southern Asia	6.4	8.1	13.4
Eastern and South-Eastern Asia	12.7	16.3	25.7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9.1	11.5	18.8
Australia/New Zealand	16.6	19.4	23.7
Oceania*	3.9	5.1	8.2
Europe and Northern America	18.7	22.0	26.9
Least developed countries	3.6	4.1	6.1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LLDC)	3.6	4.1	5.8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8.9	11.3	16.0

*ex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1.8. 유럽과 북미는 1970년대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로 동&동남아시아 가장 극적으로 하락, 2020년대 유럽보다 낮아져



1.9. 중위 시나리오에 의한 합계출산율 변화 및 예측

Total fertility for the world, SDG regions and selected groups of countries, 1990, 2021 and 2050 according to the medium scen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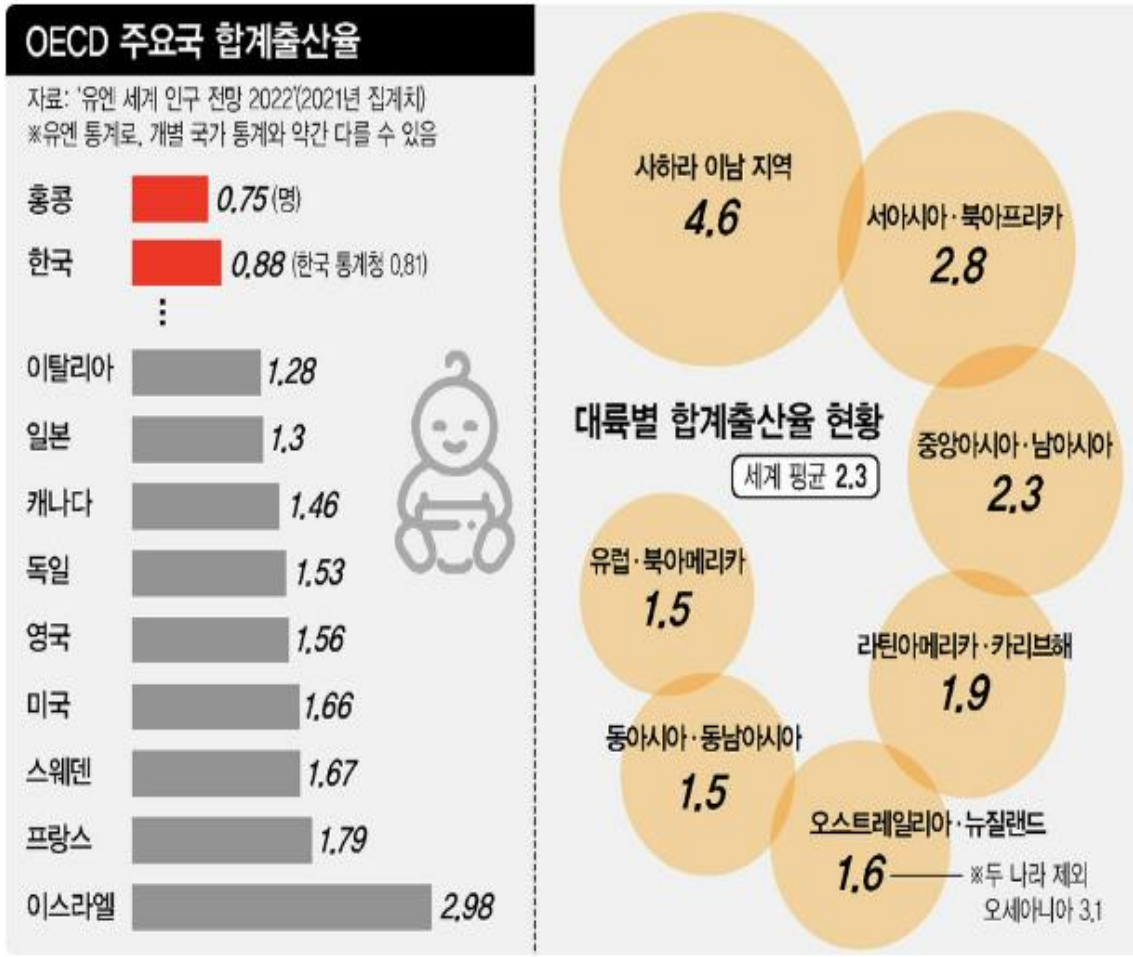
Region	*Average number of births per woman*		
	1990	*2021*	*2050*
World	**3.3**	**2.3**	**2.1**
Sub-Saharan Africa	6.3	4.6	3.0
Northern Africa and Western Asia	4.4	2.8	2.2
Central and Southern Asia	4.3	2.3	1.9
Eastern and South-Eastern Asia	2.6	1.5	1.6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3.3	1.9	1.7
Australia/New Zealand	1.9	1.6	1.7
Oceania*	4.7	3.1	2.4
Europe and Northern America	1.8	1.5	1.6
Least developed countries	6.0	4.0	2.8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5.7	4.0	2.7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3.3	2.3	2.0

*ex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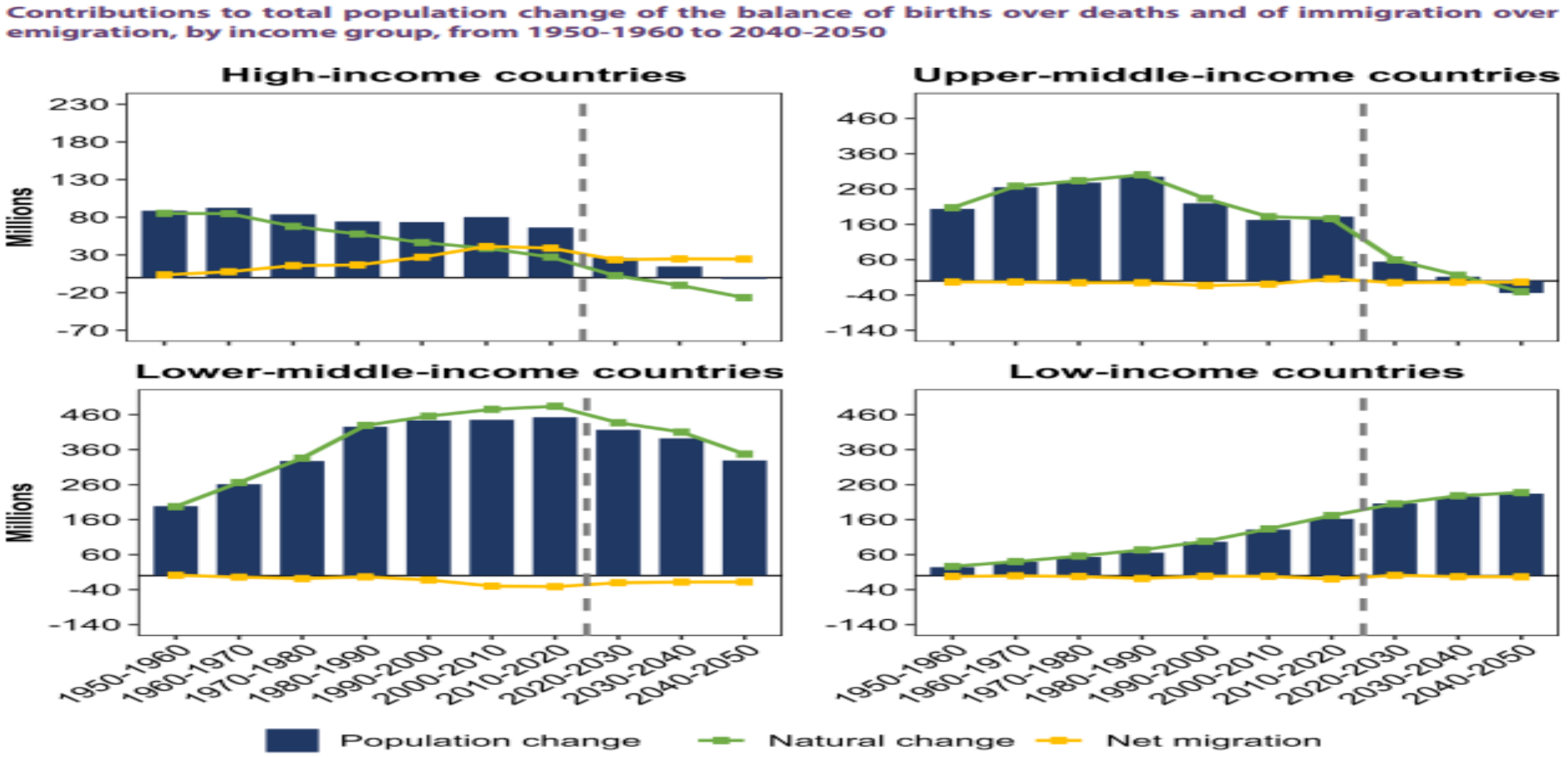
1.10. 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출산율은 더 낮을까?

- ‘유교 문화권’(Confucianism): 유교가 종교이자 국가 통치이념으로 2천년 이상 사회 전체의 윤리원칙으로 작용

- 성에 관한 도덕적 엄숙주의
- 엄격한 성 역할 구분으로 한쪽 성에 집중되는 육아 부담
- 사회적 성취를 중시하는 입신양명 문화
- 과거제 전통으로 인한 학력주의
- 삶의 만족도보다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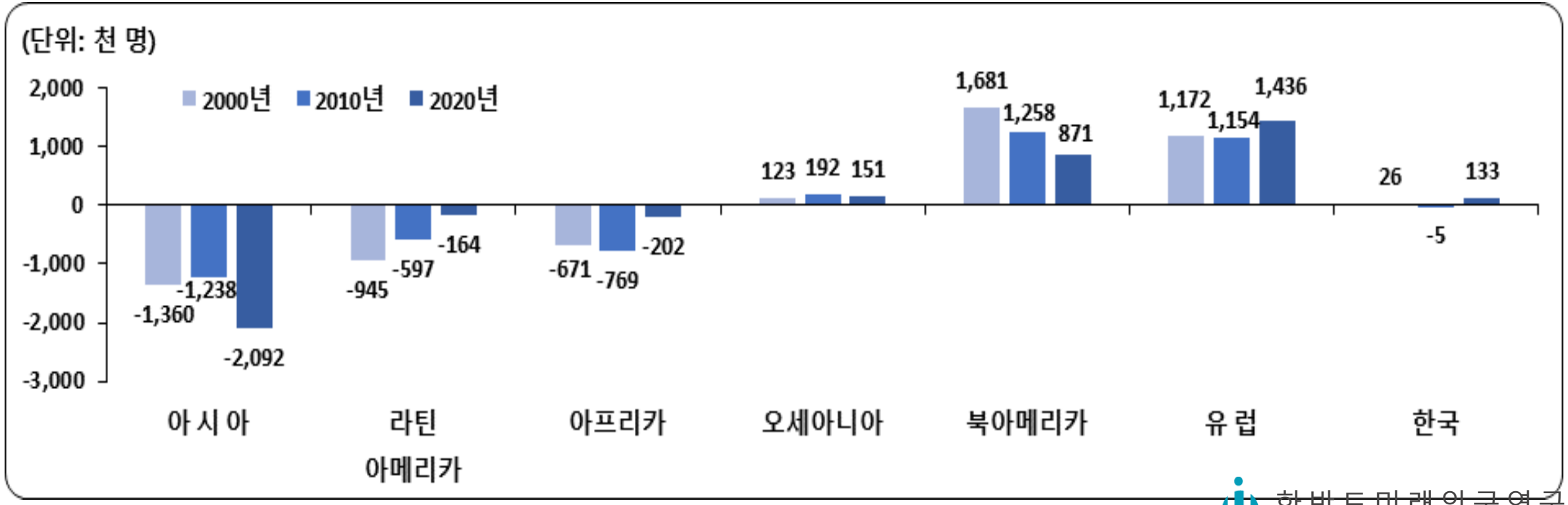
1.11. 소득수준에 따른 세계인구 변화와 이동 (1950~60, 2040~50)



1.12. 대륙별 세계 인구의 이동 추이

-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순유출, 북아메리카 유럽은 순유입
- **한국은 2000년 2만 6천 명 순유입, 2010년 5천 명 순유출, 2020년 13만 3천 명 순유입**

대륙별 국제인구 순이동 추이, 2000년, 2010년 2020년



1.13. 고소득 국가의 출산율 추이에 획기적 변화

- **Doepke 외(2022)의 연구**:
- 고소득국가의 출산율은 몇 가지 예외를 빼고 과거 100년간 감소해왔으나 최근 20년간 고소득 국가(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출산 패턴이 변화
- 출산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출산과 소득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와 부의 관계에 초점
  - 1) 양과 질의 대체관계(quantity-quality trade-off),
  - 2) 자녀양육의 기회비용 설명
- 특히 미국의 경우 출산이 양-질 대체관계나 자녀양육의 기회 비용에 의해 즉시 포착되지 않는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는 실증적 결과 → 일과 가정의 양립
- 여성경제활동 확대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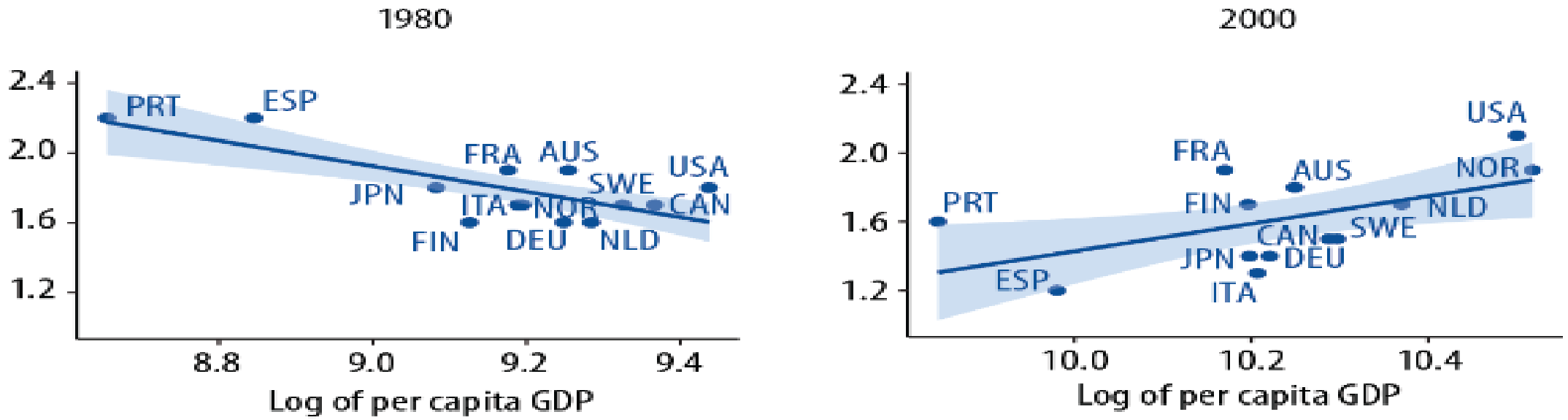
1.14. 지난 20년간 고소득국가들 1인당 국민소득과 출산율의 상관관계 역전 !!

from http://www.nber.org/papers/w29948

Total fertility rate and GDP per capita in selected OECD countries

In just 20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 capita income and fertility rates changed dramatically.

(total fertility rate, births per w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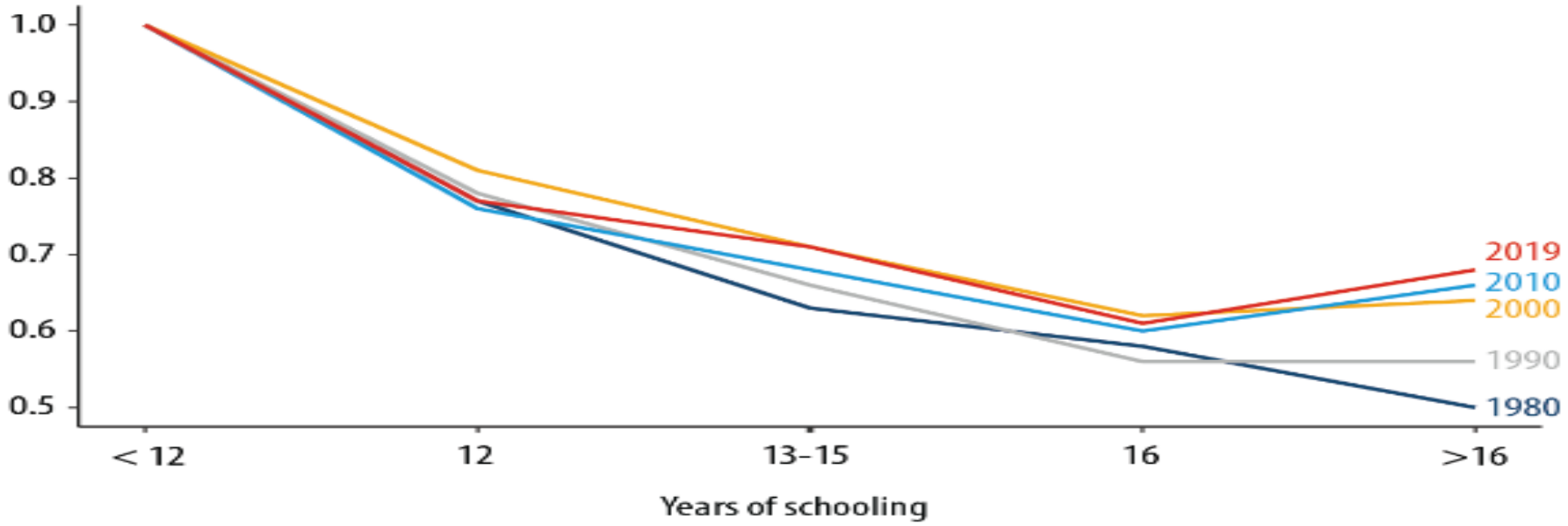
Source: Doepke and others (2022).

Note: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ata labels us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1.15. 미국의 경우 여성학력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도 역전 !!

from http://www.nber.org/papers/w29948

Normalized fertility by women's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ighly educated women with more than 16 years of schooling had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1980, but by 2019 this no longer held true.
(normalized hybrid fertility rate, births per w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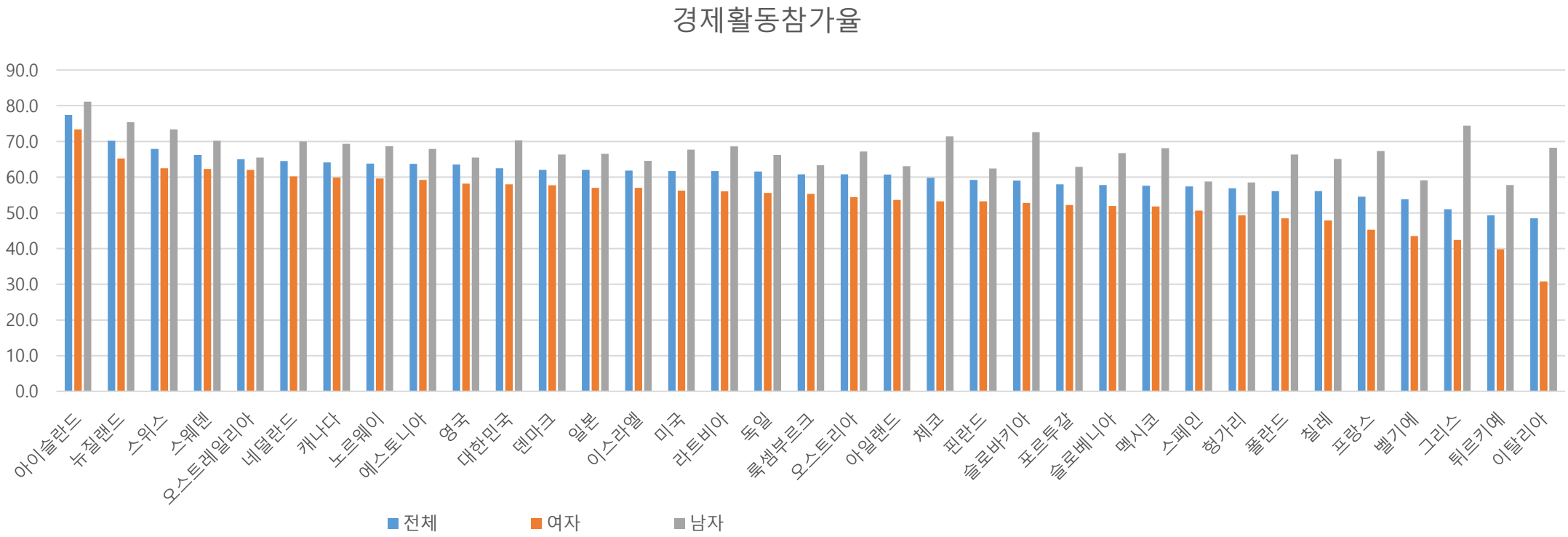


Source: Doepke and others 2022.
Note: The normalized hybrid fertility rate (HFR) was obtained by dividing all HFRs by the HFR for the lowest education group in each de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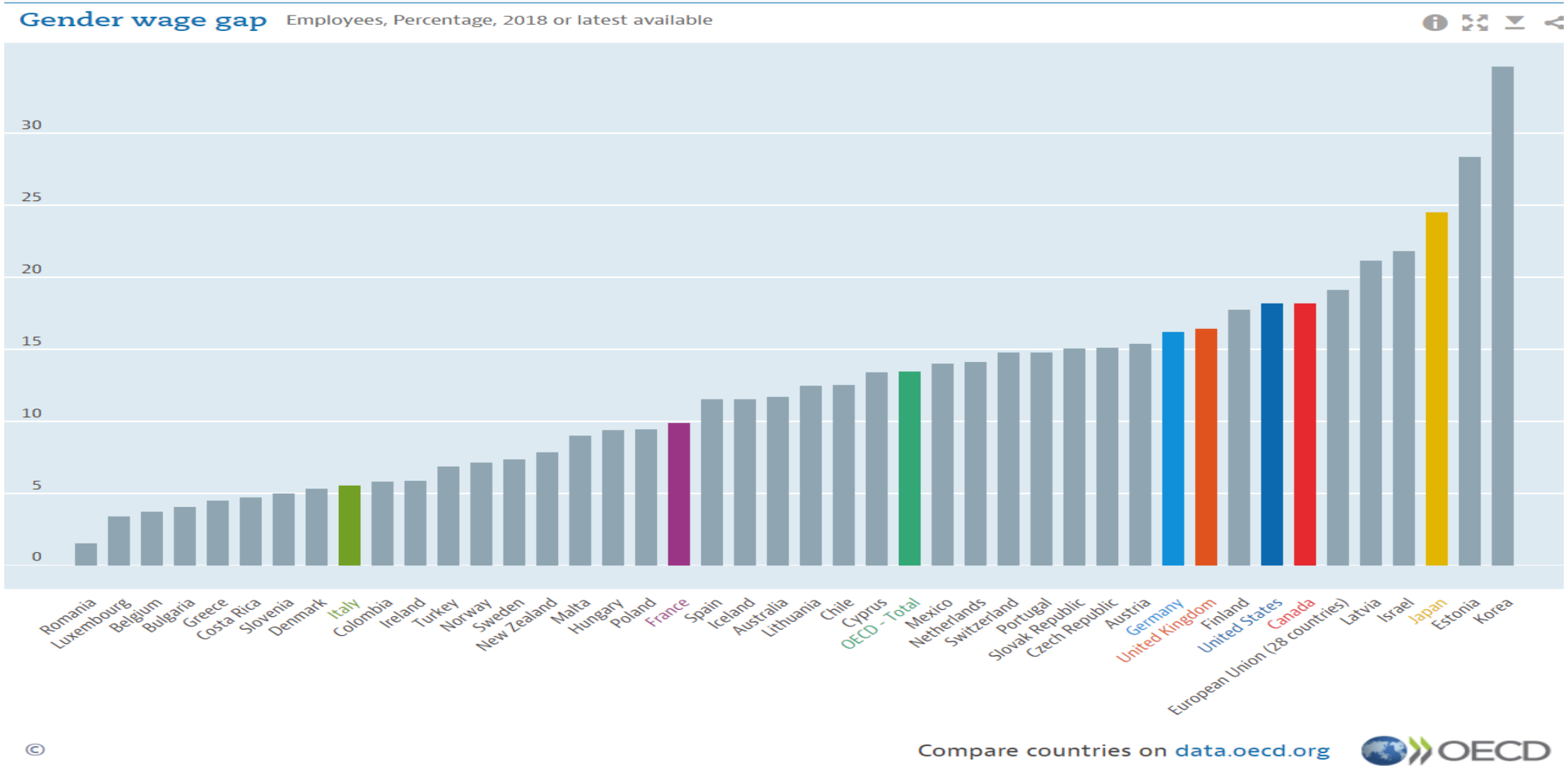
2. 인구문제의 글로벌 보편성 속에서 한국적 특수성

2.1. 낮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과 남녀 격차

- 한국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의 남녀 간의 격차가 과도해
- 2021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국가 중 남성은 상위나 여성은 중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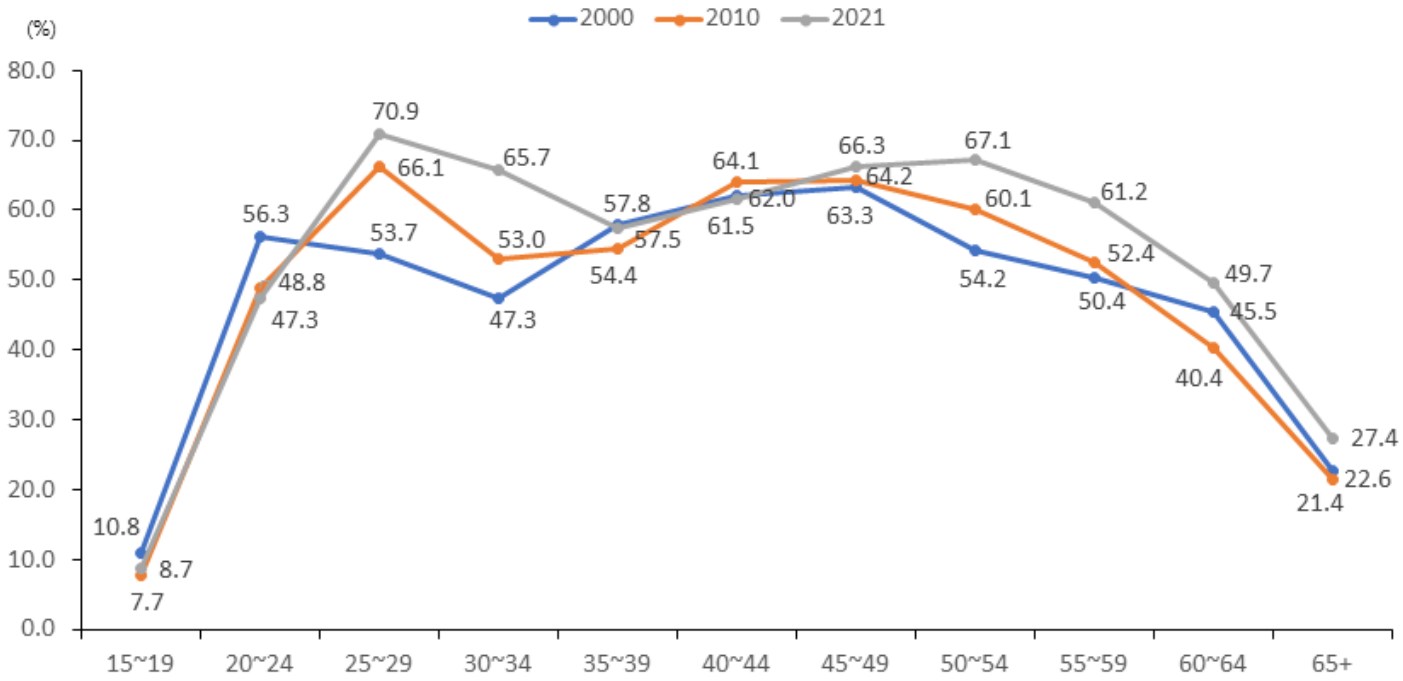
2.2. 특히, 한국 남녀간 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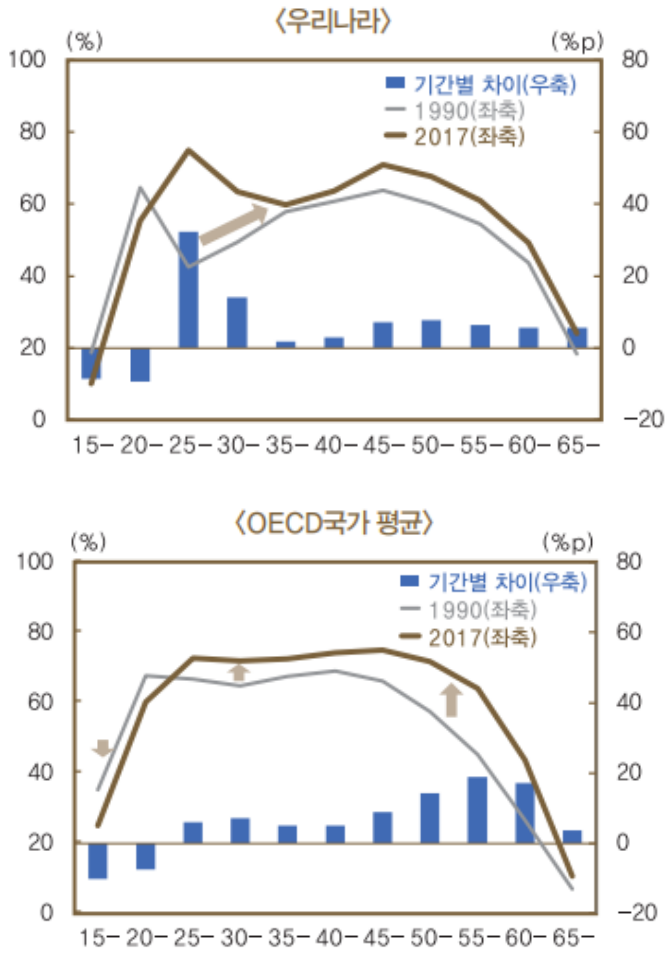
2.3. 35~39세 여성에게 심각한 경력단절현상도 과도해

-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7.7%,
- 35~39세 (57.5%)여성의 고용률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M자형 현상이 심각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자료: 통계청,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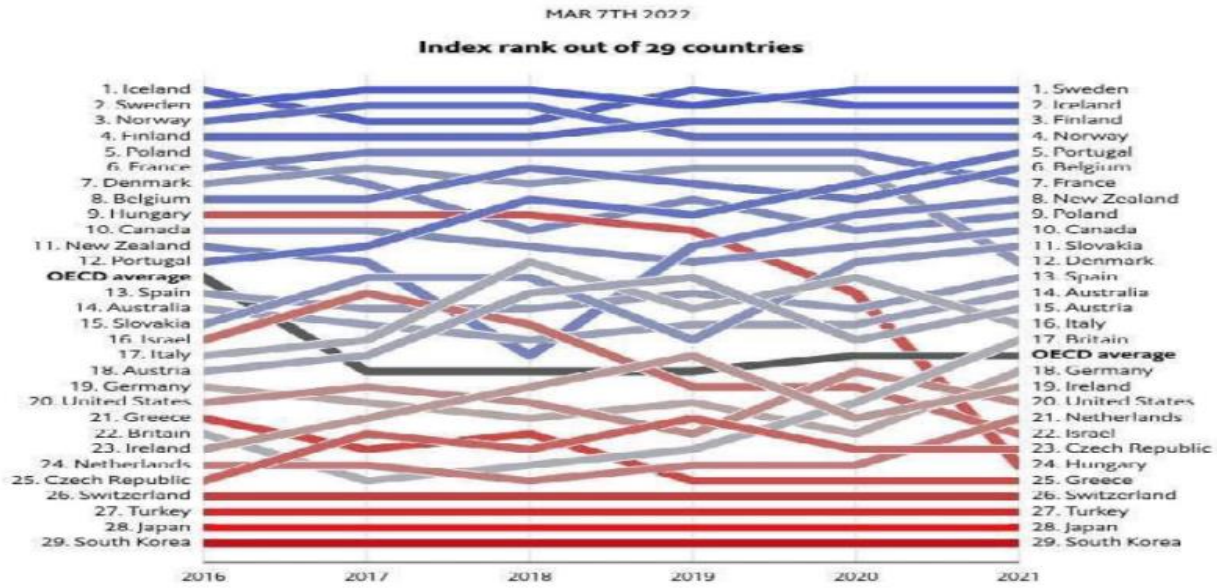
2.4. 세계적 성불평등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한국의 글로벌 성격차지수와 유리천장지수는 여전히 최하위

- 2022년 글로벌 성격차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99위(경제 참여기회 115위, 교육 97위, 정치적 기회 72위, 건강·생존 52위 등)
- 이코노미스트지의 유리천장지수(The glass-ceiling index)는 10년째 최하위(29개국 중 29위)
- 10개 항목 중 성별임금격차, 이사회 여성임원비율, 관리자여성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격차 등 노동관련지표 최하위권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2 rankings

90	Romania	0.698
91	Togo	0.697
92	Indonesia	0.697
93	Cyprus	0.696
94	Brazil	0.696
95	Belize	0.695
96	Nepal	0.692
97	Cameroon	0.692
98	Cambodia	0.690
99	Korea, Republic of	0.689
100	Greece	0.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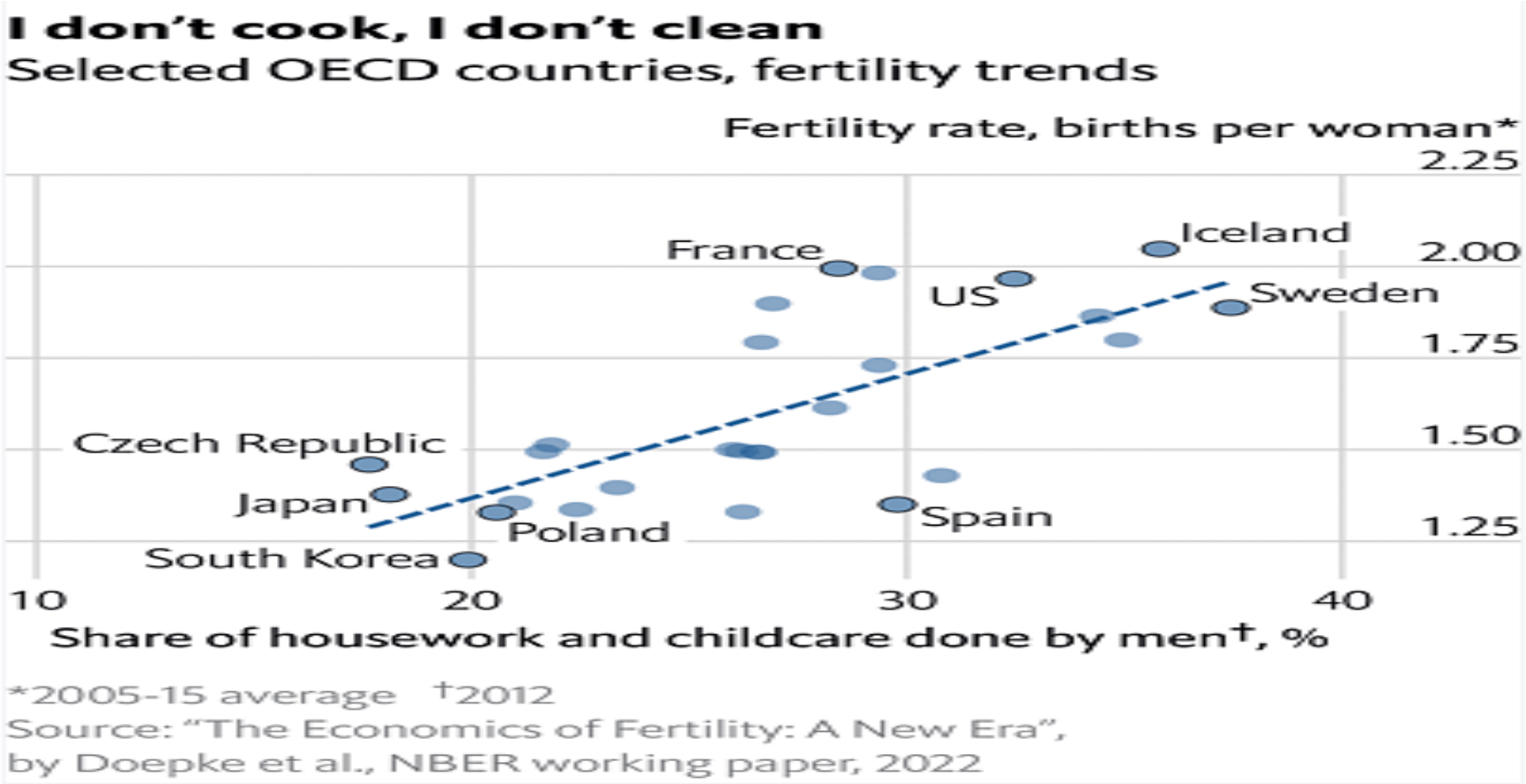
The Economist glass-ceiling index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22, 2022 July, Table 1.1. The Global Gender Gap Index 2022 rankings

2.5. 아버지의 자녀돌봄과 가정일도 매우 낮아

주요국가의 출산율과 아버지의 가정일과 자녀돌봄 관계는 양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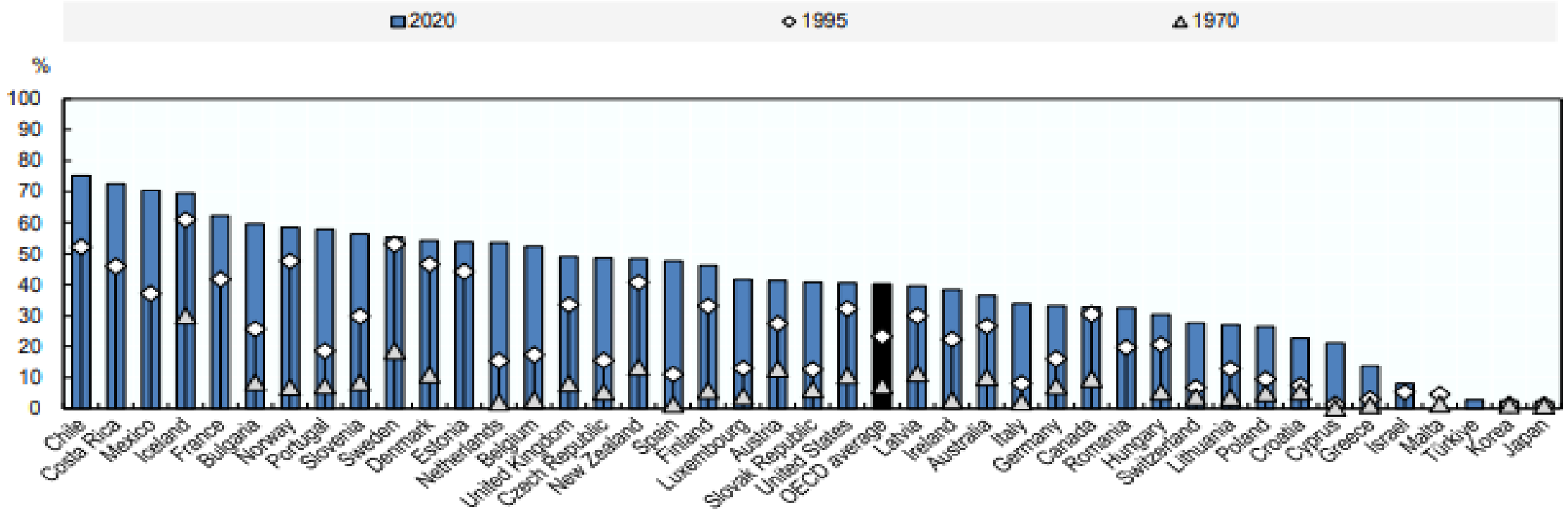


2.6. 다른 나라들은 비혼 출산율이 크게 늘었으나 한국은 제자리

비혼출산율 추이 (1970→1995→2020) 국제 비교

Chart SF2.4.B. Share of births outside of marriage over time

Proportion (%) of all births where the mother's marital status at the time of birth is other than married, 1970, 1995 and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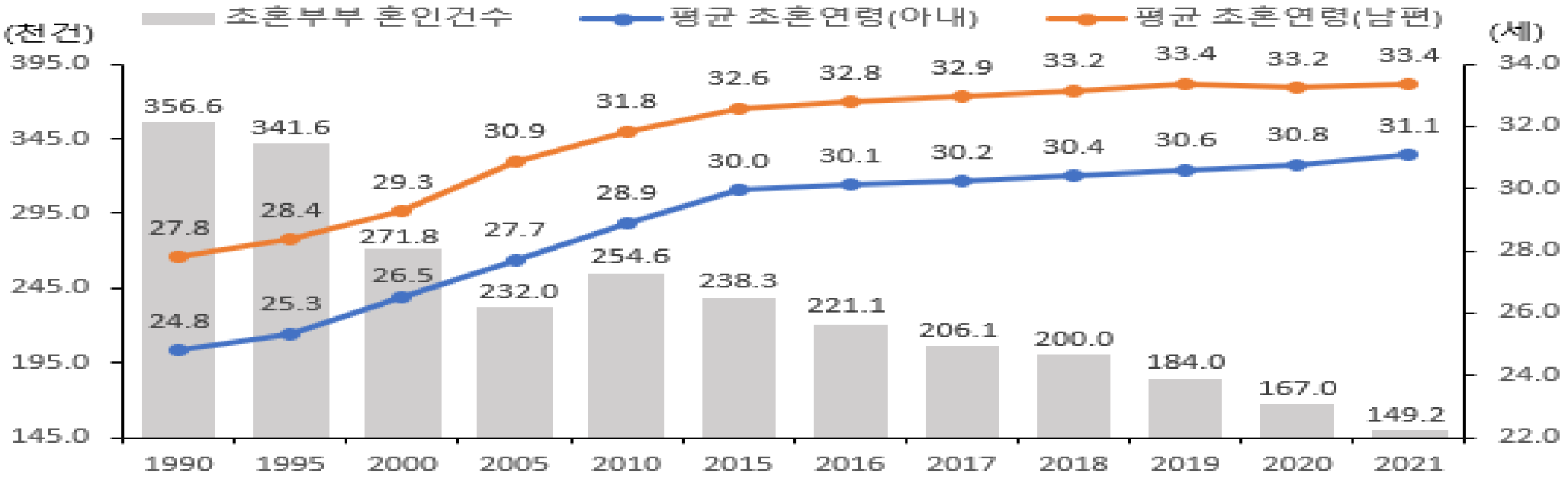


Notes and Sources: see above Chart SF2.4.B.

2.7. 결혼을 안하고 늦게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

- 2021년 평균 초혼 연령은 여성 31.1세, 남성 33.4세
-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015년에 30대로 진입 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평균 초혼연령 및 초혼부부 혼인건수 >



2.8. 초저출산 국가인데도 세제상 자녀양육에 대한 혜택이 낮아

- 한국은 OECD 국가 비교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
- 2자녀 홑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 격차가 OECD 평균 10.2%p, 한국은 5.0%p
-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14 ~ 16%p

국가	2자녀 홑벌이가구 조세격차[1)]	독신가구 조세격차[2)]	차이
프랑스	37.9%	46.6%	8.7%p
독일	32.9%	49.0%	16.1%p
일본	27.5%	32.7%	5.2%p
영국	26.4%	30.8%	4.4%p
한국	18.3%	23.3%	5.0%p
미국	14.0%	28.3%	14.3%p
OECD 평균	24.4%	34.6%	10.2%p

주: 1) One earner married couple with two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2) Single individual without children and earnings at the average wage level
자료: OECD, "Taxing Wages 2021", 2021
조세격차(tax wages)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 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실효세율 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됨.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임금 근 로자의 세부담이 크다는 뜻임

3. 인구문제로 인해 한국이 마주한 현실

3.1.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증폭

- 산업: 그동안 일부 업종은 해외공장 이전 등으로 해외에서 인적자원 조달 → 계속 인구가 줄면 해외 인적자원 조달도 한계에 달해 경쟁력 상실
- 인구문제가 산업 붕괴에서 나아가 총체적 사회문제로 증폭
- 고령화와 부양인구 급증으로 세대 갈등 증폭과 재정 파탄
- 지역간 격차를 가속화 하고, 산업의 도시집중을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악화→ 지방대학의 학생수 감소는 빙산의 일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 붕괴가 시작→ 각종 사회기반 시설이 사라지고 있어
- 인구문제는 보육 교육의 문제이며 가족문화와 연관
- 젠더 갈등 심화: 이대남 vs. 이대녀
- 지방 소멸 현상이 심각해

3.2. 피터 자이한의 한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평가

- 한국은 세계화와 인구감소의 여러 과정을 앞장 서 겪은 선구자가 아니라 그 과정들 자체를 대표하는 사례!
- 인구구조가 급속히 바뀌면서 두터운 세계시장이 한국을 견인하고 장년층의 숙련 기술 덕에 한국은 기술강국으로 자리매김
- 그러나 앞으로 악화될 에너지 접근, 물리적 안보, 안정적 노동력, 시장과 원자재 접근 등 심각하게 노출
- 글로벌 복합위기에 한국은 살아남을수 있을까?
- 탈세계화의 난관을 헤쳐나갈 창의력, 기술, 집요함, 불굴의 의지를 갖춘 국민

3.3. 한국국민 가족과 결혼에 대한 생각 빠르게 변화 중

통계청 2022년 사회조사 결과(주제별로 2년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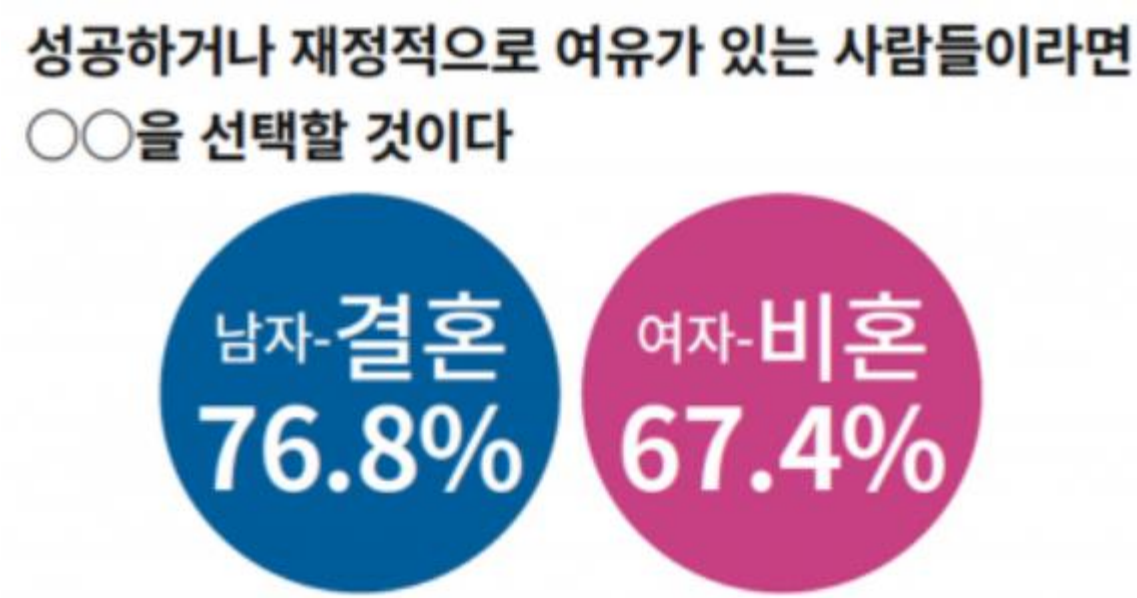
- 가사 공평 분담해야 한다 비중: 64.7% 2년 전보다 2.2%p 증가
-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평하게 분담은 20% 정도에 불과
-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 2년 전보다 1.2%p 감소
- 결혼 안하는 이유: 결혼 자금이 부족(28.7%), 고용상태 불안정(14.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13.6%) 등
- 비혼동거(65.2%),비혼출산(34.2%) : 2년 전보다 5.5%p, 4.0%p 증가
- 이혼 중립 의견(49.2%), 재혼 중립의견(67.5%)
- 재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중: 여성(18.1%), 남성(11.5%)

3.4. 결혼제도를 대하는 요즘 20·30의 시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년 12월, 20~39세 6350명 대상 생애 전망 인식조사
-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Ⅰ):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 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노동자로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 파트너가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나눌 때(양육 참여, 가사 분담,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만 자녀를 갖는 게 가능하다고 인식
- 남녀 모두 결혼이 아니라 일이 생의 중심
- 과거 '남성의 노동 중심 생애과정과 여성의 가족 중심 생애과정' 해체→ '노동 중심 생애과정'이 성 구별 없이 보편화

3.5.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 열광하는 청년세대에게 가족이란?

- 결혼 안 해 출산율 하락!→ 결혼 장려 정책
- 문제는 결혼이 아니라 이로 인해 진입하게 되는 불평등한 관계 자체



3.6. 비혼 출산에 대해57% 찬성, 세대간 차이 커

매우 찬성한다 12	대체로 찬성한다 45	대체로 반대한다 30	매우 반대한다 13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찬성 (매우+대체로)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 (매우+대체로)	계
전체	(1,000)	12	45	57	30	13	43	100
성별								
남자	(494)	12	43	55	30	16	45	100
여자	(506)	12	47	59	30	11	41	100
연령								
18–29세	(183)	23	49	72	20	8	28	100
30–39세	(160)	15	53	67	22	11	33	100
40–49세	(192)	10	52	62	29	9	38	100
50–59세	(197)	6	38	44	37	19	56	100
60세이상	(268)	8	39	47	36	18	53	1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48)	9	43	52	32	16	48	100
자녀 없음	(352)	17	49	67	25	9	33	100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598)	9	42	51	33	16	49	100
미혼	(310)	18	50	69	22	9	31	100
사별	(31)	16	39	55	30	15	45	100
이혼	(62)	5	53	58	30	12	42	100

질문 : 선생님께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를 기증 받아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0. 12. 11 ~ 12.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7.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과 갈등

- 비혼 임신 합법화
  - **내 몸은 내 마음대로(일부 여성계) vs. 훼손되어가는 인간의 존엄성(일부 종교계)**
- 비혼 늘어난 현실 반영을 vs. 아빠 없는 아이 행복할까?
- 가족형태 다양성의 존중을 vs. 개인적 희망에 생명을 좌우

3.8. 비혼 출산을 반대하는 이유도 다르고 세대차도 커

구분	사례수 (명)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자라야 아이가 행복할 것 같아서	한부모 가정과 비슷한 차별이 우려되어서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비혼 임신에 관한 법적제도가 부족해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기타
전체	(431)	65	46	34	18	7	4
성별							
남자	(224)	63	41	36	15	6	4
여자	(207)	66	51	32	20	8	3
연령							
18-29세	(52)	52	56	28	28	8	4
30-39세	(52)	65	65	27	30	11	6
40-49세	(73)	61	48	28	21	8	4
50-59세	(111)	60	40	44	15	6	4
60세이상	(143)	75	39	35	9	5	3

질문 : 비혼 출산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복수응답)

표본 수: 비혼 출산에 반대하는 응답자 431명

조사기간 : 2020. 12. 11 ~ 12.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9. 비혼자의 자녀 입양에 대한 생각도 세대별 차이가 커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한다	찬성 (매우+대체로)	대체로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반대 (매우+대체로)	계
전체	(1,000)	10	51	60	30	10	40	100
성별								
남자	(494)	9	50	59	30	11	41	100
여자	(506)	11	51	62	30	8	38	100
연령								
18–29세	(183)	20	51	71	21	8	29	100
30–39세	(160)	10	49	60	33	7	40	100
40–49세	(192)	6	53	59	31	11	41	100
50–59세	(197)	8	50	58	29	13	42	100
60세이상	(268)	6	50	57	34	9	43	100
자녀 유무								
자녀 있음	(648)	7	50	57	33	11	43	100
자녀 없음	(352)	15	53	67	25	8	33	100

질문 :선생님께서는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가 자녀를 입양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본 수: 1,000명

조사기간 : 2020. 12. 11 ~ 12. 1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10. 저소득 미혼모 중심의 지원대책
비혼율 급격히 증가.. 제도가 현실을 반영해야?

-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가족인식 급속 변화중
- 서구는 2000년대부터 동거 비혼 등 다양한 가족구성이 등장→ 법과제도 변화
- 한국정부의 저출산대책은 결혼 장려에 집중
- 여가부의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은 저소득 미혼모 중심의 지원대책
- 비혼출산에 대한 법적 위반사항은 없음. 다만 정자기증절차에 있어서 정식혼인관계자만 공적 제공가능, 비혼자에게는 공적지원 불가능 순수한 기증만 가능
- 생명윤리법 제23조 반대급부를 조건으로한 정자제공 및 알선 금지
- 결국은 국내에선 불법은 아니나 사실상 불가능

자료: 우해봉,"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동향과 특징", 통계플러스,2020.10

3.11. 청년세대 생애 전망 바뀌고 있어→ 큰 사회변동!

- 흔히 성평등, 비혼이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 거부가 아니다→ 단지 기존의 결혼제도를 통해서는 아니다→ 우리 사회는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 2019년 4월 11일, 1953년 낙태죄가 형법상 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판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관심 높아
- SNS상에서 공유된 한 컷의 이미지
- ‘왜 낙태가 죄야?→생명이 소중하니까!→그래서 혼자라도 키운다는데 왜 정자 기증 못 받아?→비혼 여성이 어케(어떻게) 애를 키워?→그래서 낙태한다는데→왜 낙태가 죄야?’

3.12. 왜 한국청년들은 더 심하게 결혼과 출산을 삶의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할까?

- 출산율과 사회현상 중 예전과 달라진 것들
- 베이비부머세대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을 종용하지 않아
- 한국청년들 사이에서 비혼 인구가 늘고 있음
- N번방류가 활개를
- 예전엔 밤새 다운받아볼 넷플릭스, 밤새며 즐길 컴퓨터게임, 섹스돌 개념 자체도 없었음.
- 이제 젊은이들이 20부작 시리즈물을 보느라 주말을 통으로 보내고, 굳이 데이트를 신청하지 않아도 영화와 드라마로 감성이 채워져 버리는 시대, 일명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덜 하는 시대'가 도래

3.13. 결혼과 출산→여성은 선택, 남성은 의무?

- 박정민, 사회복지연구 ‘청년층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에 대한 인식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 20~34세 미혼 남녀 281명 대상: '여성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필수 ' 에 동의 여성(4%) vs. 남성(12.9%)
- 연령·삶의 질(교육 수준·고용 지위·건강 상태·우울감·행복감), 사회의 질(경제적 안정성·사회적 신뢰·기회의 평등·결정의 자유·계층 이동성)이 높을수록 결혼 출산이 중요하다고 생각
-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 행위지만 사회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함
- 결혼·출산 감소 추세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포용성과 응집성을 높여 사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3.14. 전 세대 공감 : 정상가족 범위 확대/공공정자은행 설립 세대별 차이 : 보조생식술(인공수정)에 따른 명확한 법 규정/비혼 여성 보조생식술 허용

구분	사례수 (명)	정상 가족 범위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함	공공정자은행 설립	비혼 여성도 인공수정/보조생식술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비혼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허용
전체	(1,000)	78	70	62	59
성별					
남자	(494)	74	69	62	60
여자	(506)	83	71	62	59
연령					
18–29세	(183)	80	79	78	75
30–39세	(160)	74	76	66	59
40–49세	(192)	85	64	66	62
50–59세	(197)	74	66	53	53
60세이상	(268)	78	67	52	52

표본 수: 1,000명

비고: 매우+대체로 찬성 응답

조사기간 : 2020. 12. 11 ~ 12. 14

4. 인구절벽에 선 대한민국: 해결책은 있는가?

- 부모님세대의 높은 출산율과 헌신적인 교육 덕분에 훌륭한 인적자원이 된 베이비붐세대(1955~1964년생)→ 근대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민주적으로 전통적인 가족문화를 파괴한 세대
- X세대(1960~70년생), Y세대(1980~1990년대초반생), MZ(1980~2000년대초반생)을 교육하면서 공정한 사회, 아름다운 가족문화를 물려주었는가?
- 처음으로 평등한 기회를 얻어 사회진출 시작한 MZ세대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가족문화가 파괴되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 되어 버려
- 한국전쟁 이후 77년 동안 초고속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집중화, 주거형태변화· 유별난 교육열· 유별난 자녀사랑과 가족중심주의, 젠더갈등·젠더차별 등의 여러 사회현상을 잉태.
- 한국 청년들 만의 다양한 열망과 포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들이 가장 중요하며 “결혼 하고, 자식 낳고, 그 자식이 대를 잇고”와 같은 전통 가족가치를 무조건 옳다고 수용하지는 않아
- 인구문제해결에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데 정치권은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을 정치적으로 악용

4.2.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 거대한 융복합 문제를 좁은 시야로 근시안적 진단과 처방…
-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정책생산시스템은 개선해야
- 정치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에서 떠들어 대도, 결국 출산은 개인의 선택→마냥 정부만 믿고 있을 일은 아니다!
- 국가-정치-기업-가정-개인 모두의 공감대를 모아 협업하며 풀어가야
- 윤정부의 3단계 맞춤형 정책:2025년까지의 단기적 변화, 2025~2030년 중기적 변화, 2030년 이후 장기적 변화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 시기를 구분→즉각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 및 논의 시작 등의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2022년12월 28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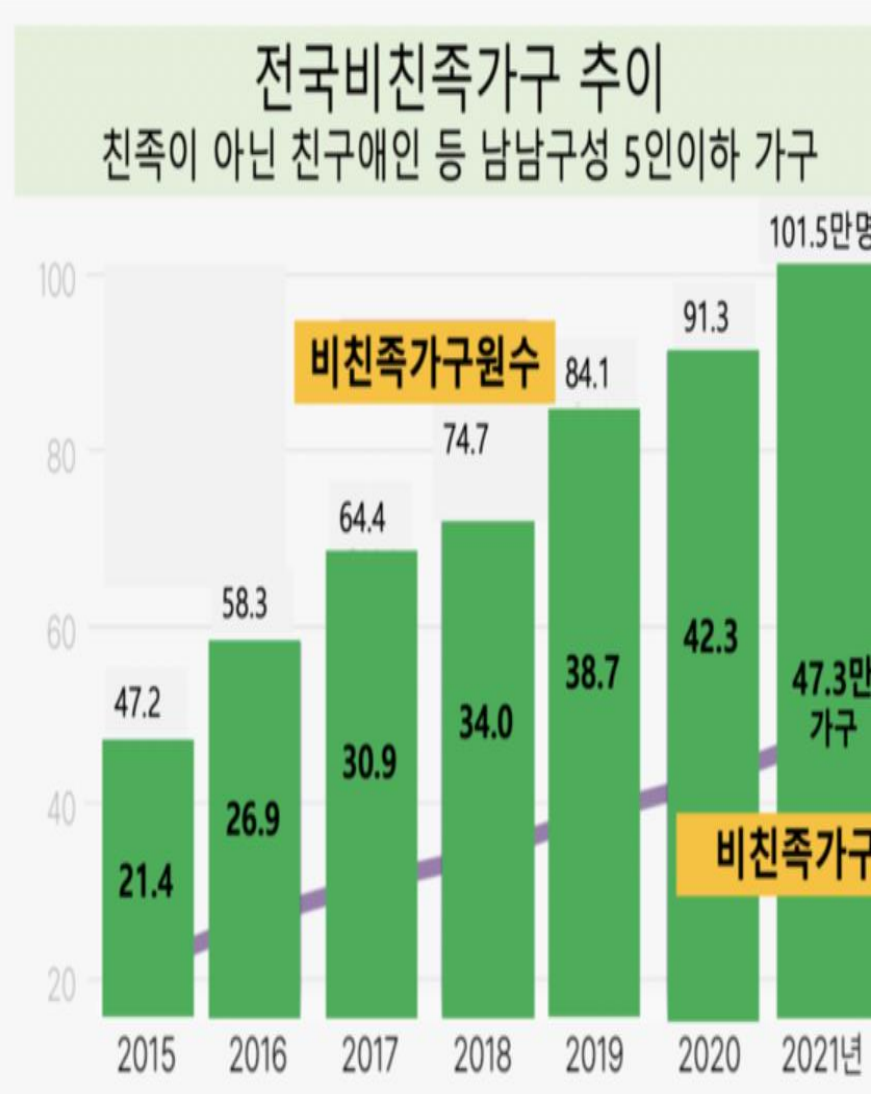
저출산 기본계획의 수정 방향

4차 기본계획		수정 방향
삶의 질 제고	정책 목표	혼인율 유지·상향 및 출산 선택 확대
모든 세대 혹은 청년	정책 대상	결혼 및 출산 선택 의사가 있는 청년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부처별 세부 과제 망라	정책 수단	가족지원 확대(출산·양육)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 (고용 격차, 주택가격 급등, 교육 경쟁)

4.3. 가족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

- '2021년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여성가족부)':

  10명 중 7명 혼인, 혈연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 공유시 가족 인정
- 건강가족기본법 2004년 제정: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발적, 가정문제 해결방안과 지원정책 강화해 정상가정 구현
- 2021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를 바꾸고, '건강가정' 용어 등을 개정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 윤 정부들어 가족 규정 현행 유지 및 건강가정 용어 유지 → '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이 윤정부의 국정 과제
- 사실혼, 동거가구, 학대 피해, 아동위탁 가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원래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가족' 규정을 그대로 유지 ,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만 앞으로도 계속 가족으로 보겠다는 뜻
- 2021년 기준 비친족가구원 수만 100만 명이 넘어.
- 엄마·아빠·딸·아들로 구성된 가족만 '정상가족'→ 그 외 가족, 비혼출산, 동거가정,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여전히 윤 정부 하에서 정상가정이 아님



4.4. 저출산 문제 정책 피상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 소비 감소→생산 감소→기업 투자 감소→일자리 축소…. 인구 소멸의 악순환은 후속세대에 더 이상 희망고문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데도 피상적인 접근에 머물러

• 대통령 임기는 5년, 이 문제에 관한 한, 근 20년간 보수정권, 진보정권 모두 방치

• 정치권에서는 당장 표로 환산 안 되니, 후순위로 밀려

• 청년들의 출산 기피 사유는 차고 넘친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의 일자리나 소득에 대한 불안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걱정, 환경오염이나 사회범죄 까지…

• 여성들의 경우, 본인의 커리어를 잘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와 현실과의 괴리

•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수많은 저출산 대책에도 별다른 성과를 못 보는 이유 → 현실을 못보기 때문

4.5. 적극적 선별적 이민정책의 도입

- 제조업 위주의 숙련기능 근로자를 넘어서 고학력 이민자 수용
  - 창업이민의 경우 세제혜택, 단기적 소득세 면제
  - 국내박사 학위자 이민 독려
- 이민정책 행정조직은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충분히 대처 가능하며 중첩된 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참고: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2022년12월 발표)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과

- 산업계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
- 외국 인력 적극적 탄력적 유치→ 규제 완화
- 우수한 외국 인력 대상 외국인 사전허용 직종(93개)과 관계없이 취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 금년 상반기에 신설
-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요건 완화, 과학·기술 우수인재에 대해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숙력기능전환인력의 연간 총쿼터도 5000명까지 확대
- 비전문취업인력 비자를 가진 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5년인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비자 기간(4년10개월) 이내인 4년으로 완화
- 외국 인력 도입 규모 5만9000명(2022)→ 11만명(2023)
- 동포방문취업(H-2)의 취업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 전환
- 외국인 유학생 출신 졸업생은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E-9 비자)으로 전환해 활용
-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4.6. 인구관련 통계지표도 개선되어야 →유배우자 합계출산율

•'출생 통계 신규 지표 개발 방안 연구'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혼인 지속 기간 15년 미만인 기혼 여성을 분석 대상, 혼인 기간에 기반한 유배우 합계출산율 추이

- 2005~2016년에 1.40~1.60명에서 등락
- 2015년 1.5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2020년에는 1.13명까지 하락
- 결혼과 출산은 대다수 청년에게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
-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되어야.
- 스스로 정한 결혼 적령기를 지나면 결혼 의향이 높아지지만, 외부에서 정한 적령기에는 결혼 의지가 오히려 꺾여→ 캠페인성 결혼·출산 독려 정책이 성과를 내기 어려워

4.7. 계속 급강하 중인 저출산 대한민국 구하기

- **한국의 저출산은 생존본능이 종족보존본능을 누른결과**
- 저출산은 복합적 문제. 한 방향으로만 답을 찾으려 하면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
- 귀 닫고, 특정 계층의 말만 들어서도 답 없다.
- 탁상공론만 해선 더더욱 답 없어.
- 정부는 여러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현상들을 깊게 들여다 보아야
- 유럽, 미국, 일본과도 또 다르므로 이제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를 모델링하자,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상황.
- 참고는 하되, 우리만의 문제인식, 우리만의 통찰, 우리만의 해결책들이 나와 줘야
- **여성의 '독박육아' 깨트리기 정책 시급→** 아빠들이 출산 초기부터 육아를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4.8. 일본 시골마을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 파격적, 집중적

인구 6000명 나기쵸 마을 지자체 소멸 위기감에 20년간 파격적인 육아 지원으로 합계출산율을 2000년 1.4명에서 2022년 2.95명으로

나기쵸에서 시행 중인 주요 육아 지원 정책

금전적 지원	
재택육아 지원수당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7개월부터 4세 아동 부모에게 아동 1인당 월 1만5000엔(14만원) 지급
불임 치료 지원	나기쵸 지정 의료기관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경우 연 20만엔(192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의 절반을 5년간 지원
남성 불임 치료 지원	일본생식의학회가 인정한 전문의 소속 기관에서 남성 불임 치료를 받는 경우 연 30만엔(288만원)을 한도로 5년간 지원
무상 의료	18세까지 의료비는 나기쵸가 부담
출산 축하금	출산시 일률적으로 10만엔(96만원)지급
서비스 지원	
육아 용품 대여	카시트·유모차·아기침대 등을 복지협회에서 월 100엔(962원)에 대여
육아 서포트 스마일	나기쵸 어린이집에서 1인당 1시간 300엔(2800원)에 나기쵸 거주자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자료: 나기쵸 공식 홈페이지)

4.9. 젊은 여성 비혼 비출산 프레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 딸 가진 베이비부모들→ 딸들에게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대신 능력이 있었음 좋겠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았음 좋겠다.
- 여성들의 반란? "아이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 남편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전지구적으로 여성들이 알아 버린거다"
- 반면, 나라별로 복지혜택(유급휴가, 육아보조금 정책)이 있을수록 아이 있는 부부가 아이 없는 성인부부들보다 더 큰 행복(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을 느낀다는 통계 결과
- 서유럽, 북유럽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합계출산율도 높다 →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자체가 원인이 아니란 뜻
- 출산 후 노동시장이 관건!→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 재택근무, 유연한 휴가제 등

4.10. 돌봄경제를 시장경제에 체계적으로 편입

-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필수 요소인 돌봄경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 한국 정부의 거시경제 및 재정 정책의 기반인 국민계정(national Accounting)
- 돌봄경제(care economy)를 사회계정(Social Accounting Matrix)에 포함시켜 돌봄경제를 포함한 재정정책을 새로 만들 필요
- 일 가정 양립에 국가와 기업이 역할을 다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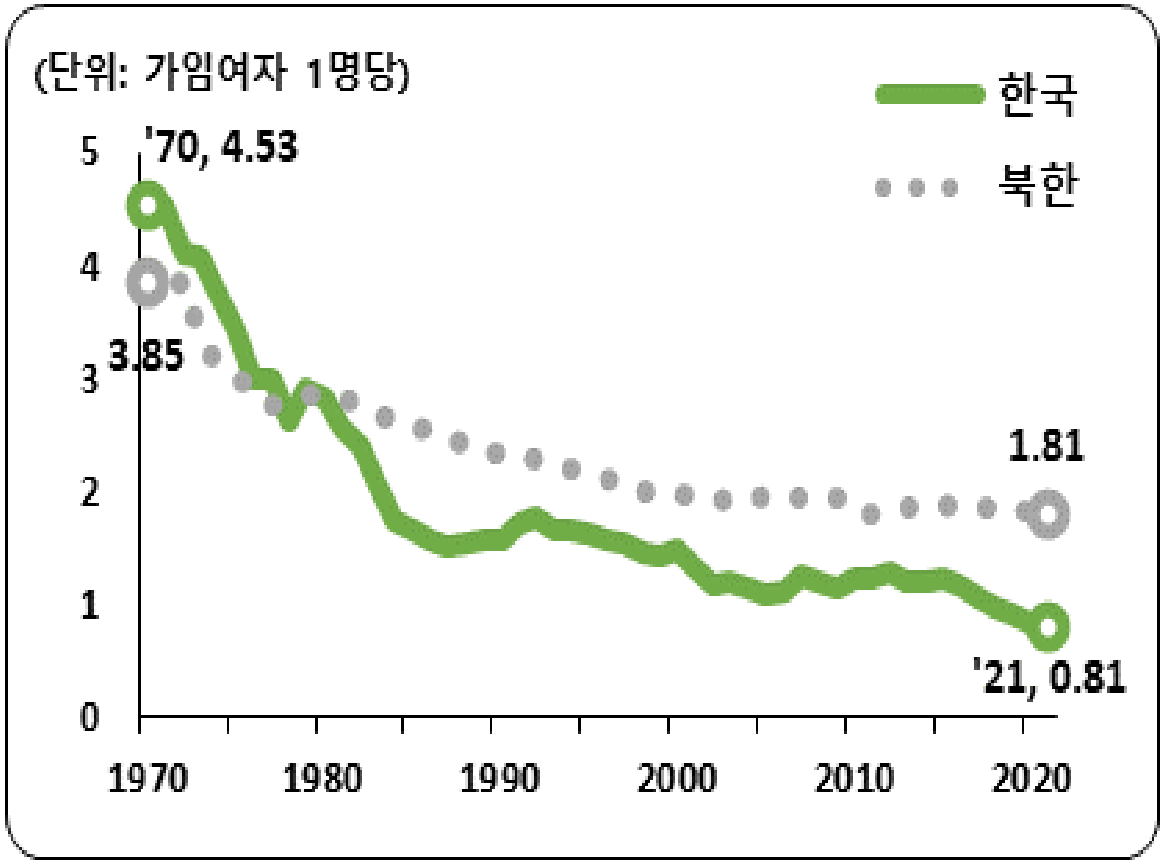
4.11.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인구문제 해결의 킹핀

- 비혼 출산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
-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도입
-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정책 도입
- 대기업부터 기업별 출산율 초혼율 실태 발표
- K-ESG지표에 기업 출산율 혼인율 첨가
- 대기업 성공사례를 중견기업으로 전파하되 정부지원책도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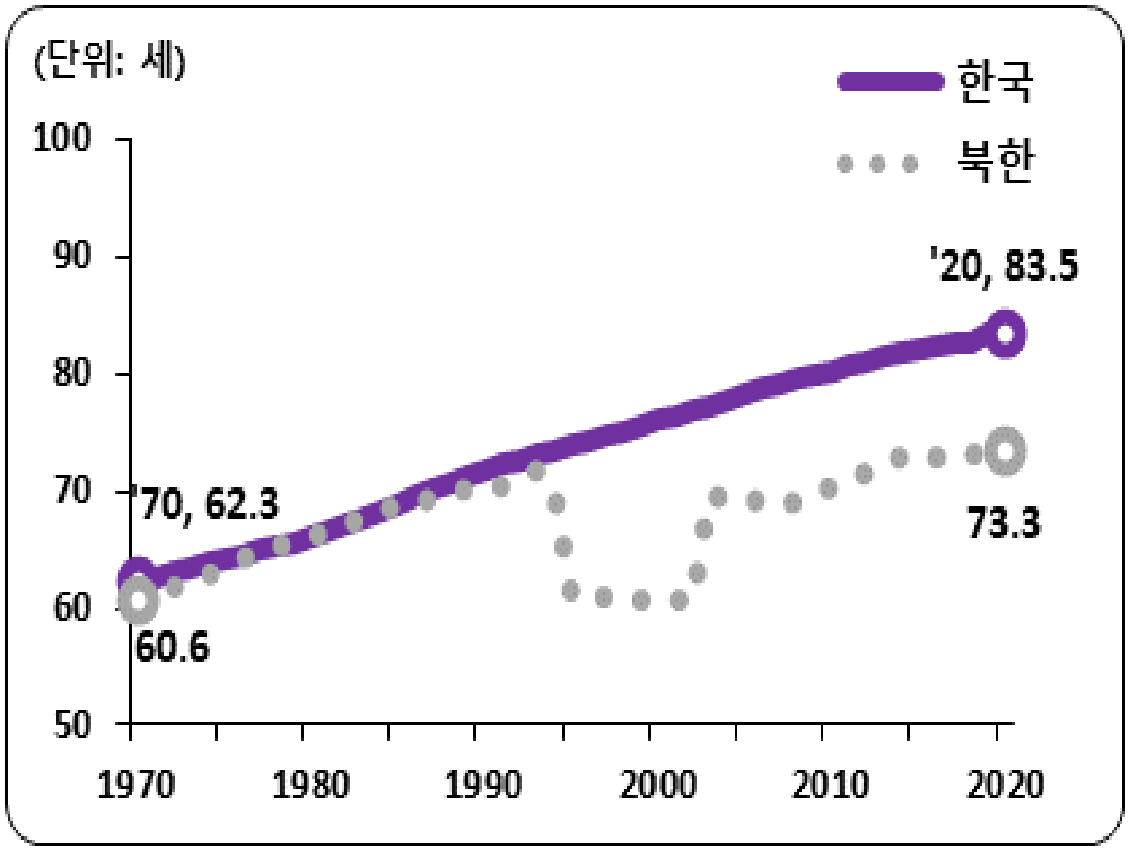
참고: 남북한 인구를 합치게 되면? 출산율, 기대수명

- **북한은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은 높으나 기대수명은 낮아**

남북한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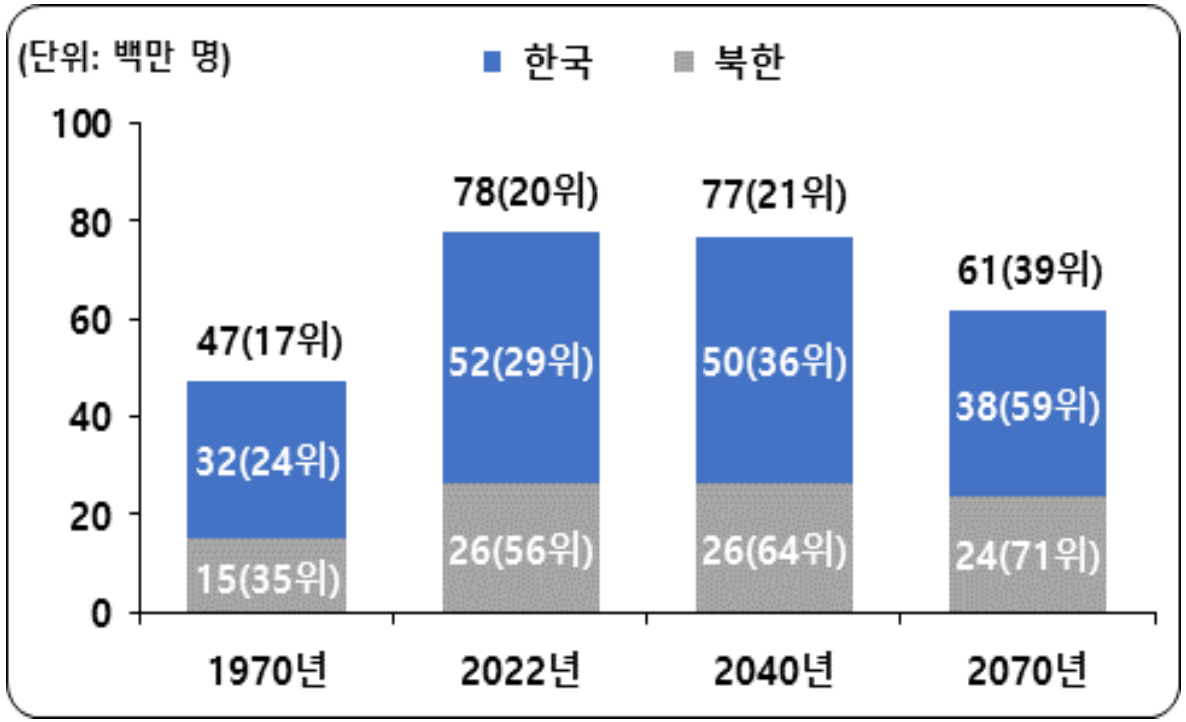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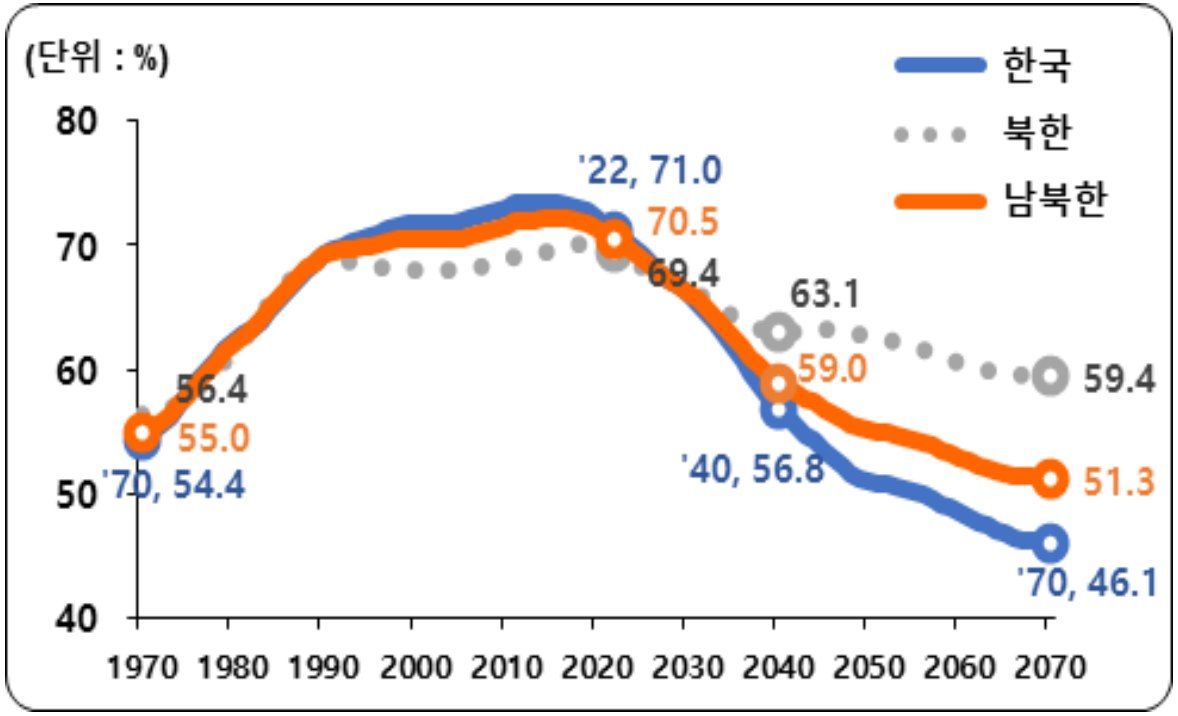
남북한 기대수명 추이



참고: 남북한 인구를 합치게 되면? 인구감소는 둔화되나…

- 총인구: 2022년 7800만명→ 2070년 6100 명
- 남북한을 합한 고령인구 구성비 2022년 15.5%→ 2070년 38.5%
- 한국에 비해 2022년에는 1.9%p, 2070년에는 7.9%p 낮을 전망

남북한 인구 추이



남북한 생산연령 추이